

Dior

DIORSNOW

눈꽃처럼 화사하고 투명하게

칙칙한 피부톤에 대한 디올의 승리

피부 광채: 새로워진 컴팩트 파운데이션 화이트 리빌 퓨어 & 퍼펙트 트랜스퍼런시 SPF 30-PA+++에는 화이트의 기준, "스노우 화이트" 바라이트(barite)로 만들어진 라이블리 화이트™ (LIVELY WHITE™) 피그먼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피그먼트는 피부에 환하고 투명한 광채를 선사하여 칙칙한 피부톤이 주는 어두움을 커버하도록 도와줍니다.

피부 투명함: 디올 스노우 화이트닝 스킨케어의 기술 발전이 결합되어 탄생한 이번 신제품 디올 스노우 컴팩트 파운데이션에는 자연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 칙칙한 피부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도록 도와줍니다.

뉴 화이트 리빌 퍼펙팅 메이크업 UV 베이스 SPF 35-PA+++와 함께 사용시, 투명하고 티없이 맑은 피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인 피부에 특화된 배합 및 테스트

Style

조선일보

APRIL 2014 vol.108



TIFFANY & Co.
NEW YORK SINCE 1837

Metamorphosis, an Hermès story



Bathing suit and cotton pareo
Les Nécessaires d'Hermès
Occasional low stools
in Essentiel bullcalf and canvas
에르메스 코리아 02 544 7722
Hermès.com



BURBERRY



14



36

10



- 14 **SMALLER, GREENER, WISER** 언젠가부터 친환경과 콤팩트라는 키워드를 달고 다니는 자동차는 이제 엔진 대신 모터, 기술인 대신 전기를 새로운 근간으로 삼아 일각의 주장처럼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21세기 도시 인프라의 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될 것인가? 프리미엄 자동차들의 진화가 흥미롭다.
- 16 **MASTER'S TIMEPIECE** 정확성을 통제하는 시계의 상징부자이자 워치메이킹 기술의 최고 경지를 드러내는 투르비옹 워치 컬렉션.
- 18 **FANCY GEMS** 무채색의 어린 꽃송이 위로 피어난 아름다운 유색석 주얼리의 화려한 순간.
- 20 **NOBLE COMPLETION**紳사들의 표적이 되는 유려한 라인의 클래식 구두 컬렉션.
- 22 **OPTICAL RADIANCE** 이번 시즌에 새롭게 등장한 광채 화장품은 어떤 독자적인 성분과 기술력으로 업그레이드되었을까.
- 24 **PERFECT CONTROL** 자연스러운 커버력과 산뜻함을 겸비해 남자의 피부를 확실하게 책임질 BB크림 열전.
- 26 **RENEW YOUR HAIR** 무실리온 샴푸와 천연 식물 성분 에센스, 모근 강화 앰플 등으로 가려운 두피와 푸석함에 시달리는 머릿결을 구출할 것.
- 29 **2014 BASELWORLD** 1917년 스위스의 작은 도시 바젤에서 시작된 워치 박람회는 2014년 현재까지 쉬지 않고 시계와 주얼리라는 하나의 테마로 달려왔다. 시계라는 작은 우주가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박람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란다. 인간의 놀라운 집중력이 만들어낸 시간의 예술, 그리고 바젤월드에서 선보인 그 아름다운 결과물인 2014년을 빛낼 새로운 시계들을 소개한다.
- 34 **2014 S/S MEN'S TREND REPORT** 보다 다채로운 패턴과 레이아웃, 소재의 접목이 돋보이는 2014 S/S 남성 컬렉션.
- 36 **CATCH IT BAGS** 옷, 구두보다 여자가 짐작하는 건 바로 가방이다. 이번 시즌 어떤 가방이 그녀의 레더링에 포착되었을까.
- 42 **GENTLE SUITS** 정통 이탈리아 남성복 브랜드 빨라베리가 그들의 클래식한 아이덴티티를 담은 다양한 워딩 수트를 선보인다.
- 44 **NEW LEGEND, NEW MOMENT** 정당한 위치 브랜드와 그 이름을 나란히 하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한 샤넬 워치, 올해 샤넬은 새로운 워치만 선보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시간의 가치와 의미를 재정의하며 새로운 시간의 콘셉트를 선보였다.
- 46 **EDITOR'S PICK** (스타일 조선일보) 에디터의 취향을 엿볼 수 있는 추천 코즈메틱은 바로 이것.
- 47 **ENJOY, BROW BAR** 베네피트의 워싱 서비스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놀라운 변화에 대한 취재기.
- 48 **STYLING EFFECT** 똑같은 공간이라도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에 따라 전혀 다른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다. 가실, 침실, 다인룸 등 세 공간을 각기 다른 두 가지 스타일로 꾸며 줄 드레싱의 묘미를 전한다.

Style 조선일보

Issue.108 April 2014



여행의 정취
루이 비통 패스(Louis Vuitton pass) 앱을 다운로드하면 더욱 특별한 컨텐츠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LOUIS VUITTON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에디터 | 배미진 mjjin@chosun.com 권유진 yjkwon@chosun.com
 이메일 | yejin_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숙 okida@chosun.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조동일 ci@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805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합니다.
 ※ 스페셜 에디션이나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하십시오. stylechosun.com

Jewel WONDER NATURE

작은 동물, 독특한 타지는 거품, 강렬한 식물까지 자연에서 온 모티브들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은 주얼리 컬렉션.

(오른쪽 윗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허우스를 대표하는 다양한 동물 컬렉션을 하나의 네크리스에 담은 에.엘.엘. 스프로 모티브 네크리스 9만원(원래, 고슴도치 모티브 네크리스 7만원)에 모두 부채, 풍요 모티브를 상징한 블루빛의 라파스 리틀리코 표현한 라파스 컬렉션 시크리베 모티브 네크리스 2만4천원(원래 2만7천원), 화이트 골드에 시트린, 사파이어,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새 모티브의 파라카트 링 5만5천원(원래 6만2천원), 거품과 같은 독특한 무늬 매력을 표현한 파리 누벨라그 컬렉션 링 9만9천원(원래 11만2천원), 송아지를 드러낸 입 모양을 위트 있게 표현한 대저지 시크리베 링 2만9천원(원래 3만2천원),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그린 에메랄드를 꼬리에 품은 도마뱀을 묘사한 물렁도 링 4만9천원(원래 5만2천원) 브로치 가격 미정 부채, 에디터 이예진



Beauty ROSE THERAPY

보가 예도 아름다운 장미는 피부에도 좋다.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을 억제하는 장미 성분은 피부에 비하면 뛰어난 재생, 항염과 진정, 피부 톤 개선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 장미 꽃잎과 같이 부드러운 핑크빛 피부로 가꾸고 싶다면 피부에 생기를 되찾아주는 장미 성분 제품을 주목하라. (이때부터 시계 방향으로) **피리쉬 로즈 페이스 마스크**는 2,2톤의 장미꽃에서 단 1kg만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성분을 담은 수분 마스크. 수딩 작용이 뛰어난 젤 타입의 콜링 마스크로 자극받은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킨다(100ml 8만2천원). **디올 프레스타지 화이트 컬렉션 시너-브라이팅 클루이 드**는 다음의 독보적인 성분인 로즈 드 그랑빌을 함유해 피부 속 염증을 차하고, 피부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해 탄력을 선사한다(50ml 42만원). **엘비타 모이스처라이징 로즈 베타 크림**은 100% 유기농 오일드 로즈, 로사 카나나 장미를 담아 풍부한 보습과 진정 효과를 자랑하는 보습 크림. 피부 깊숙이 차오르는 수분감을 선사한다(40ml 7만원). **달랑 로즈 아로마틱 케어**는 오가니 로즈 아로마 오일, 이브닝 피라미 로즈 오일을 블렌딩해 피부에 부드러운 윤기와 생기를 더하는 아로마 오일. 생리 전후를 맞으면 심신을 안정시킨다(15ml 8천원). **노에사 블로섬 셀렉션**은 수만 송이의 장미에서 추출한 향을 담은 로션 타입의 아로마 파뮌. 인공 향과 보존제가 함유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향으로, 가장 순수한 다마스크 장미 향을 느낄 수 있다(30ml 7천 원). **말레드보 보테 이드링 크림**은 낮 동안 피부를 효과적으로 보호해 광채와 탄력을 유지해주는 낮 전용 모이스처라이저. 11년간의 연구가 개발된 로즈 향을 담아 스킨케어 시 자선 심신을 편안하게 데려준다(20ml 27만원). 에디터 권유진

Interview CONTEMPORARY CHIC

현대적인 디자인과 세련된 염색 기법, 과하지 않은 담백한 멋으로 클래식 슈즈 애호가들의 러브콜을 받는 스페인의 수제화 브랜드 맥너니. 분다삼(클라시)의 VIP를 대상으로 진행된 맞춤 슈즈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맥너니의 오너, 파스쿠알 블랑코(Pascual Blanco)가 한국을 방문했다. '수제화 생산이 삶의 방식 그 자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오직 좋은 품질의 정직한 구두만을 생각하는 그와 나는 짧은 인터뷰. **Style Chosun(이하 SC):** 맥너니를 모르는 이들에게 브랜드를 설명해달라. **Pascual Blanco(이하 PB):**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거쳐 3세대 스페인의 작은 도시 알만사(Almansa)에서 50년 이상 남성 구두만을 만들어왔다. 자체 공장을 두고 디자인하기 때문에 최상의 품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 맥너니라는 이름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데이트를 하던 당시 분영화 속 여배우의 이름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흔치 않은 디자인과 독특한 감성을 추구하는 브랜드 철학과 맞닿아 있다. **SC:** 맥너니 구두만의 차별점은 무엇인가. **PB:** 가죽과 색상, 모든 염색 과정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짝배는 것이 다른 색이 다른 색감이 발현된다. 또 장갑 기법이라고도 일컫는 볼로나 공법을 적용해 신축성이 훌륭하고 오래 신어도 발이 편하다. 일찍이 일본이나 미국 등지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SC:** 맥너니의 맞춤 슈즈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달라. **PB:** 오로지 나만을 위한 맥너니를 갖고 싶어 하는 이들을 위해 1년에 2~3번씩 진행되고 있다. 얼굴처럼 제다 다른 발 모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소재와 컬러 등을 세세하게 고를 수 있다. 이번에는 도마뱀, 코르카다일 등 다뤄지던 디자인도 이그조티브 레더로 함께 선보였다. **SC:** 맥너니는 어떤 남자를 위한 슈즈인가. **PB:** 명품이나 특정 브랜드를 신용하지 않고 정직한 제품과 좋은 디자인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남자, 자신만의 분명한 취향과 스타일이 있는 남자라면 맥너니의 가치를 이해할 테니 말이다. **SC:** 맥너니를 한디로 정의해달라. **PB:** 너무 클래식하지도, 트렌드를 좇지도 않는 가장 현대적인 디자인이 곧 우리들 뜻한다. 한디로 'contemporary'. 문의 02-3479-1958 에디터 이예진



맥너니의 오너, 파스쿠알 블랑코. 사진: 권유진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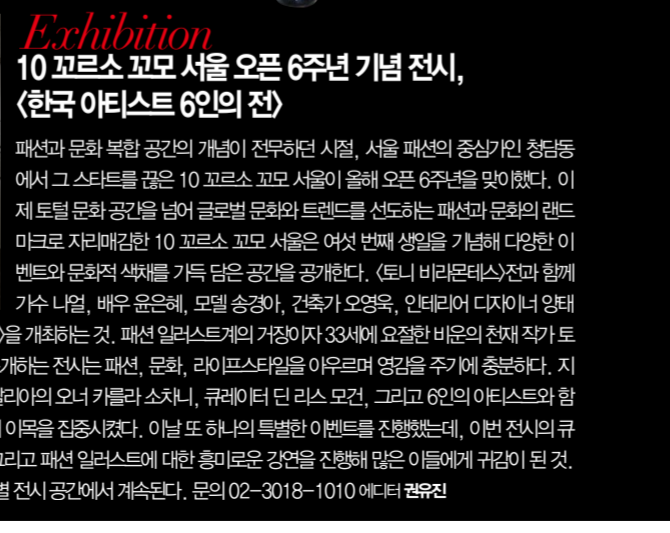
Fashion PRINTS, AGAIN!

꽃피는 봄이 오면 늘 사랑받는 프린트가 돌아왔다. 매년 스트라이프나 체크 등에 국한된 캐주얼 아이템으로 소극적인 스타일링을 고집했다면, 올해는 예술적인 타자와 유머, 로고 플레이 등으로 더욱 대담해진 프린트의 믹스 매치를 즐기라. 먼저 이번 시즌 가장 두드러지는 예술파를 살펴보자. 칼 라가벨트는 자신의 옷다 핀 예술혼을 불사르겠다는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옷을 하나의 캔버스로 여긴 듯하다. 런웨이를 이트 갤러리로 꽃피운 사블은 다채로운 물감을 섞어 드레스와 스카츠, 체인 백 전체에 그려 넣었으며, 셀린느는 오버사이즈 톱과 하늘거리는 플리츠 스카츠에 가친 톱 타자를 담아 멋진 트라지컬 무드를 완성하는 데 성공했다. 수채화 물감이 번진 듯 프린트의 경계가 모호한 튜브 톱 드레스와 재킷을 선보인 베르사체도 마찬가지. 자신의 꽃밭을 가꾸는 데 열중한 정원가도 머니, 크리스토퍼 케인, 스티븐 매키니니, 드리스 반 노튼, MSGM 등에서 줄줄이 이어진다. 대부분 상의와 하의를 모두 같은 플리츠 프린트로 믹스하는 고난이도 스타일링을 제안하는데, 신발이나 가방 등은 지극히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스탠드아웃 디자인의 미학을 보여주었다. 한편 옷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로고파도 자리를 굳힌다. 대표적으로는 캐롤 림과 움베르토 레오의 겐조를 꼽을 수 있다. 파도를 연상시키는 물결치는 햄리인 스카츠와 매치한 티셔츠에는 'No Fish, No Nothing'이라는 문구를 얹어 멸종 위기 어종에 처한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디자이너 비비안 웨스트우드 역시 'climate' 타이포그래피를 가슴 전면에 새겨 넣어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음은 물론, 그들의 무한한 영감을 예술적인 타자와 사회적 인 메시지로 실현한 다채로운 프린트에 동참할 준비, 되었는가? 에디터 이예진



Exhibition 10 피르스 피오 서울 오픈 6주년 기념 전시, <한국 아티스트 6인의 전>

패션과 문화 복합 공간의 개념이 전무하던 시절, 서울 패션의 중심지인 창동동에서 그 스타터를 끊은 10 피르스 피오 서울이 올해 오픈 6주년을 맞이했다. 이제 토털 문화 공간을 넘어 글로벌 문화와 트렌드를 선도하는 패션과 문화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10 피르스 피오 서울은 여섯 번째 생일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와 문화적 색채를 가득 담은 공간을 공개한다. (토니 비라몬테스 전과 함께 가수 나일, 배우 윤은혜, 모델 송경아, 건축가 오영욱, 인터리어 디자이너 양태오, 작가 윤환호가 꾸민 전시 속의 전시, <한국 아티스트 6인의 전>을 개최하는 것. 패션 일러스트계의 거장이자 33세에 오묘한 비문의 천재 작가 토니 비라몬테스의 일러스트 전시와 한국 아티스트 6인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는 패션, 문화, 라이프스타일을 아우르며 영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지난 3월 25일에 진행된 전시 오픈 행사에는 10 피르스 피오 이탈리아의 오너 카를라 소차니, 큐레이터 디 리스 모건, 그리고 6인의 아티스트와 함께 패션, 문화 업계에 중시하는 영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또 하루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이번 전시의 큐레이터인 디 리스 모건이 토니 비라몬테스의 일생과 작품 활동, 그리고 패션 일러스트에 대한 흥미로운 강연을 진행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된 것. 전시는 오는 4월 27일까지 10 피르스 피오 창동 플래그십 3층 특별 전시 공간에서 계속된다. 문의 02-3018-1010 에디터 권유진



Art. VPR14Q prada.com

PRADA EYEWEAR



올리브 프린트 양가죽 장지갑 1백7만원 지방시.

컬러풀한 패턴트 프린트 장식이 돋보이는 체인백, 26X16.5cm, 가격미정 샤넬.

코스타 및 지오아네 스페이 스카프 1백만원 루이비통.

유화 작품을 연상케 하는 꽃 터치가 멋스러운 실크 블라우스 4백50만원 레오나르도.

스칼레톤 공예와 예술 작품의 결합으로 탄생한 중국 자수 메타에 다른 파블라스 오너먼트 워치 가격 미정 바세론 콘스탄틴.

내은 컬러시일 교양 장식이 유아프린트 네그리스 50만원 베네치아 아리아자 by 10 코르소 코모.

사탕색의 유화적 감 아스트레트 이미지 에디터 권유진

정미 프린트와 고풍적인 스웨덴을 할 가격 미정 디올.

화려한 비주얼 장식을 위한 그린 컬러 선글라스 가격 미정 프라다.

위트와 개성은 파란색을 이어줌 31만원 3천원 매니쉬 아리아자 by 톨그레이 하워드.

브랜드 로고와 올리브 패턴이 조화를 이룬 헤어밴드 34만원 켈리.

편한 핏팅크와 레오파드 패턴이 절묘한 송아지가죽 장지갑 70만원대 생로랑.

망 사탕색의 핑크색 1백만원의 베네치아.

for her Selection

패션과 예술의 만남은 늘 흥미롭다. 한 쪽의 그림을 연상시키는 프린트와 정교한 수공예 작업을 통해 탄생한 패션 아이템은 아트 그 자체다. *photographed by hong seung eun*



- 지방시 02-517-7560
- 루이비통 02-3432-1854
- 샤넬 02-543-8700
- 디올 02-513-3232
- 레오나르도 02-3449-5163
- 미우미우 02-3218-5341
- 켈리 02-2056-9022
- 프라다 02-3218-5331
- 생로랑 02-3438-7627
- 에르메스 02-544-7722
- 10 코르소 코모 02-3018-1010
- 바세론 콘스탄틴 02-3449-5930
- 톨그레이 하워드 02-3442-3696

멕시코 벽화에서 영감을 받은 페이스 프린트 원피스 4백만원대 프라다.

OMEGA

www.omegawatches.com



Ω
OMEGA
SEDNA™ GOLD

No painting or photograph can do justice to a late-day sun setting in the twilight sky. The western horizon blazes with ever-changing shades of gold and red. A moment of perfect silent reflection passes all too quickly. With 18K Sedna™ gold, OMEGA has created a watch whose rose gold lustre—the result of an artful blend of gold, copper and palladium—is worthy of the most memorable sunset. This world premiere's colour will sparkle vividly when a thousand sunsets have been forgotten.

Discover more about Sedna™ alloy on www.omegawatches.com/sedna

청담 부티크 02 511 5797 • 신세계 강남점 02 3479 6025 • 롯데 잠실점 02 2143 7266 • 현대 무역센터점 02 3467 8632
현대 목동점 02 2163 1283 • AK플라자 분당점 031 708 5520 • 현대 대구점 053 245 2249 • 현대 부산점 051 667 0417



위트 있는 스카이라인 패턴과
기하학적인 패턴이 아우라진
셔츠 17만5천원 그레이 하운드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연하던
트래블 북 20만 원대
폴리 코튼 100% 20만 원대

3색의 다양한 패턴이
아이스틴 울링 양복

닷 모티브의 커브스
링크 60만 원대
에르메스

플라워 프린트
보잉 선글라스
20만 원대 수비 by
올타갈 W.

화려한 새 깃털 프린트가 이국적인 스타일은
28만 원 디에이 by 10 코르소 코모.

강렬한 레드 컬러의 VTT 메트로 스포츠워치부터
오르메 데 라 메르 시계까지 1만 원대부터 10만 원대

카무플라주
패턴 해골 벨트
80만 원대
루시안 필라
파티 by 무이.

기하학적 패턴의
헤드셋 25만 원대
슬리퍼블릭 by
비이커.

꽃무늬 프린트 장갑 70만 원대

아프리카 전사의 얼굴을 프린트한
PVC 백팩, 48x36cm, 1백45만 원 지방시.

과일과 기타 등등은
무이 비룡 20만 원대
폴리 코튼 100% 20만 원대

아자수 패턴의
모자 20만 원대
골든구스.

그레이 하운드, 플레이 하운드
02-3443-4508
올체안가바나 02-3444-0077
10 코르소 코모 02-3018-1010
루이 비룡 02-3432-1854
프라다 02-3218-5331
올타갈 W 02-6911-0845
에르메스 02-544-7722
무이 02-3446-8074
골든구스 02-3449-5974
지방시 02-517-7560
비이커 02-543-1270

블록 패턴 맨투맨, 반스메 셔츠 각 11만5천원, 15만5천원 플레이 하운드.

emporioarmaniswissmade.com ARS 7501



EMPORIO  ARMANI
SWISS MADE

Smaller, Greener, Wiser

속도에 대한 욕망, 신분에 대한 과시를 반영하는 자동차. 독일의 카를 벤츠가 기술린 자동차를 완성하며 이 기계 미학의 결정체를 발명했지만, 실제로 양산을 실현한 건 미국 디트로이트의 랜섬 E. 올즈였고, 대량생산의 시대를 연 건 헨리 포드였다. 언젠가부터 친환경과 콤팩트라는 키워드를 달고 다니는 자동차는 이제 엔진 대신 모터, 기술린 대신 전기를 새로운 근간으로 삼아 일각의 주장처럼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21세기 도시 인프라의 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될 것인가? 프리미엄 자동차들의 진화가 흥미롭다.



2



〈다른 방식으로 보기〉라는 명저를 남긴 영국의 비평가이자 소설가 존 버거의 말처럼 옷과 음식, 자동차, 화장품, 목욕, 그리고 햇빛은 그 자체로서 즐겨야 할 '실질적인 것들'이다. 그는 이러한 분류에 해당되는 '의식주형 물건'과 그 물건을 소비하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자본주의의 조작에 이끌리는 '벽서리'를 구별했다. 하지만 웃은 패션이라는 범주로, 화장품은 스킨케어와 웰빙이라는 범주로 실질적인 필요성의 경계를 넘어서도 얼마든지 '과잉'의 지름신을 불러온다. 그렇기에 우리는 물질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대부분 자신의 소유물을 실제로 사용하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가까이 자본주의의 조작에 항복할 만큼 사물의 유희는 치명적이나까. 이 점에서 자동차라는 물건은 좀 다르긴 한 것 같다. 일상에 필요한 물건이면서도 호사나 이미지를 추구하는 욕망의 대상이기도 한 이중적인 면모는 분명 갖추고 있지만 옷처럼 수집하듯 사들이기는 쉽지 않은 물건이다. 아마도 가격 자체도 만만치 않지만 그보다는(자동차 한 대 값의 럭셔리 백이나 옷이 흔한 걸 보면) 첨단 기계 미학이 뒷받침하는 정체성이 주는 육중한 존재감과 물리적인 공간의 부담감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 아닐까.

속도에 대한 욕망을 반영한 기계, 최소의 에너지로 합리적인 이동을 가능케 하는 도시 인프라로

그런데 요즘 자동차를 향한 시선에도 살짝 변화가 감지되는 것 같다.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동경이 수그러든 건 아니지만 '일상의 도구'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자동차를 보다 현명한 필수재 소비의 대상으로 여기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가리켜 일본 디자인계의 구루인 하라 켄야는 그의 최근 저서 〈내일의 디자인〉에서 "차량은 별로 특별한 것도 없는 일상적인 도구가 됐다. 따라서 차량에 요구되는 것은 기능과 효율, 그리고 이 양자를 부족함 없이 담아내는 디자인"이라며 유럽과 일본을 필두로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그 변화의 배경으로 이동, 통신을 포함한 거대한 도시 시스템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자동차의 근간이 엔진에서 모터로, 기술린에서 전기로 바뀌고 있는 데다 통신 기술의 발달로 차량이 단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원활한 교

통 체계를 좌지우지하며 얼마든지 시스템 차원에서 제어할 수 있는 '혈류의 요소'가 되어가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환경 인프라'의 미래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사람들이 자동차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를 압축적인 문장으로 표현했다. "엔진을 제어한다는 '드라이빙의 미학'을 억제하는 대신,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는 '배끄러운 이동'을 최소의 에너지로 실현하고 싶다는 '냉정한 의지'를 뒷받침하는 '모바일 장비' 계열로 향하고 있다." 물론 속도와 힘의 미학을 사랑하는 스포츠카 애호가와 엔진 마니아들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들은 오레도록 남을 테지만 업계를 지탱하는 거대한 회전축은 '드라이빙 마신'에서 '모바일-커뮤니케이션의 도구'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논리다. 그리고 이처럼 이동을 위한 '모바일 장비'는 공기처럼 일상과 함께하는 존재이므로 필수적이지만 인간의 강한 소유욕이나 동경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매력은 덜하다는 것이다. 국내 시장은 "이제 자동차는 사회적 신분이나 스타일을 드러내는 소재가 아니다"라는 하라 켄야의 다소 극단적인 주장을 수용할 만큼 변화의 급물살이 일어날 곳으로 꼽힐 최적의 후보는 아닐지도 모른다. 자동차 업계에서 '프리미엄 콤팩트'와 '친환경'이라는 키워드가 부각되고 있는 데는 경기 침체나 다양한 가격대의 차종이 등장한 것도 한몫을 했겠지만 이러한 시선의 변화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프리미엄 수입 차들이 계속 각광받는 배경에도 단지 브랜드와 스타일에 대한 선호도만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의 기준인 '가성비', 즉 가격 대비 품질과 도시 생활에 맞는 실용성이 상당한 작용을 한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다.

프리미엄 콤팩트 카의 전성시대 오나

현격하게 새로운 흐름은 아니지만 국내외의 자동차 시장에서 '프리미엄 콤팩트(premium compact)'라는 키워드는 올해도 여전히 뜨거운 이슈다. 지난해 '골프 제너레이션'이라는 용어가 퍼질 정도로 '골프 7세대' 등으로 인기를 끌었던 폭스바겐의 열풍이 휩쓸 가운데 메르세데스-벤츠가 작년 하반기 국내 시장에 처음으로 '젊은 메르세데스'를 강조하며 A-클래스를 들여온 데 이어 올 초 프리미엄 콤팩트 4-도어 쿠페 모델인 '더 뉴 CLA-클래스(The New CLA-Class)', 그리고 최근에는 프리미엄 콤팩트 SUV인 '더 뉴 GLA-클래스(The New GLA-Class)'를 내놓았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2012년에 첫선을 보인 B-클래스, 그리고 작년 가을에 나온 A-클래스는 지난해 총 1천5백66대가 판매됐다"며 "이는 전년 대비 150% 성장한 수치"라고 말했다. 벤츠는 콤팩트를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지닌 고객을 대상으로 '소모성 부품 교환 서비스 항목'을 따로 분리한 '콤팩트 패키지'까지 별도의 상품으로 내놓는 등 이 시장에 대한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BMW는 기존의 뉴 1 시리즈에 이어 최근 프리미엄 소형 쿠페의 계보를 새롭게 있다는 BMW 뉴 2 시리즈 쿠페를 선보였다. 동급에서는 유일하게 후륜 구동 방식을 채택했다는 이 쿠페 중 국내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모델은 '뉴 220d 쿠페 M 스포츠 에디션'이다. BMW그룹에서 독보적인 마니아층을 거느린 소형차 브랜드 미니(Mini)도 성장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 6천 대 이상의 판매고로 6.3%의 상승세를 기록했다는 미니는 지난 4월 초 3세대 모델인 '더 뉴 미니'를 선보여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세대 미니보다 98mm 길고 전폭은 44mm, 전고는 7mm

1월 초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선보인 프리미엄 콤팩트 4-도어 쿠페 모델 'The New CLA 45 AMG 4MATIC', 2 프리미엄 소형 쿠페의 계보를 새롭게 있다는 BMW 뉴 2 시리즈 쿠페. 동급에서는 유일하게 후륜 구동 방식을 채택했다는 이 쿠페 중 국내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뉴 220d 쿠페 M 스포츠 에디션' 모델. 3 대부분의 동급 하이브리드 경쟁 모델을 크게 앞지른다는 연비를 자랑하는 '올-뉴 링컨 MKZ 하이브리드'. 한국인 출신 강수영 디자이너가 인테리어를 총괄했다는 링컨의 최신 중형 세단이다. 4 북미 연비가 16.7km/L에 달해 국내 완성 차 업계의 대표 디젤 세단보다 연비가 좋다고 알려진 아우디 A3. 5 토요타의 최신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콤팩트 해치백 'The New CT200h'. 6 지난 4월 초 선보여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3세대 모델 '더 뉴 미니'. 커브의 기민성과 승차감이 향상됐다고.



3



5

더 높아진 미니 3세대는 이처럼 커진 차체 덕분에 커브의 기민성과 승차감이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탑승자 사용 공간과 트렁크 용량이 211L로 더 넓어졌다고. 아우디 코리아가 국내 프리미엄 소형 시장을 겨냥해 내놓은 야심작인 '뉴 아우디 A3' 세단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초 국내 시장에 선보인 A3는 현재까지 누적 계약 대수 3백 대를 돌파한 것으로 추산됐다. A3 세단은 3천만원대 소형차임에도 복합 연비가 16.7km/L에 달해 국내 완성 차 업계의 대표 디젤 세단보다 연비가 좋다고 알려져 있다. 아우디 코리아는 최근 콤팩트 스포츠카의 전설인 아우디 TT의 누적 생산 50만 대 돌파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TTS 컴퍼티션(TTS Competition)' 모델을 한정판으로 내놓기도 했다.

보다 청정한 환경을 향한 의지의 실현

'친환경'은 단지 회색어만으로도 남기에는 그 막중한 책임감의 무게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모두의 '사명'인 것이다.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자동차 브랜드 홍보에서 '친환경 요소'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데다 기후변화와 무관치 않은 듯 보이는 재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탄소 배출량 감축 등 환경문제를 둘러싼 과제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대의명분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영지(허버드 비즈니스 리뷰) 최신호에 따르면 〈포춘〉이 선정한 세계 200대 기업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탄소 배출이나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세웠다고 하며 자동차 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포드는 엔진 성능을 개선하고 새로운 연료를 개발하며 하이브리드와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는 과제를 2000년대 중반부터 수행해왔다. 최근 국내 시장에 공개한 하이브리드 2종은 바로 그러한 의지의 소산이다. 우선 링컨 브랜드의 최신 중형 세단인 '올-뉴 링컨 MKZ 하이브리드'는 대부분의 동급 하이브리드 경쟁 모델을 크게 앞지른다는 연비를 자랑하는데, 도심/고속도로 기준 18.0km/L(미국 공인 연비 기준)다. 또 차세대 포드의 대표 모델을 표방하는 중형 세단 '퓨전' 역시 동급 최강의 연비(19.4km/L-복합, 신연비 기준)를 내세운다. 기존 토요타 캠리와 현대 소나타의 16.4km/L와 기아 K5의 16.8km/L를 뛰어넘는 연비라고. 하이브리드 차량에 남다른 정성을 쏟아온 토요타의 최신 프리미엄 콤팩트 해치백 'The New CT200h'도 눈에 띈다. 전 모델에 동급 최다라는 10개의 스피커를 장착한 이 하이브리드 카는 자연음에 가까운 음질 구현을 위해 렉서스 최초로 대나무 섬유와 대나무 숲을 재료로 한 진동관을 적용했다고, 메르세데스-벤츠도 도시화와 네트워킹의 진화가 가속도를 더해갈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복잡한 교통 환경에 부합하는 친환경 차량 개발에 힘쓰고 있다. 올해 최초로 B-클래스의 전기 차 모델을 미국에서 내놓을 계획이며 수소연료 전지 차(F-Cell) 기술에도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 차가 본격적인 상용화 국면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내연 엔진이 주류로



6

자리매김할 것이란 전망에 발맞춰 기술린 직분사 엔진 '블루다이렉트(BlueDIRECT)' 기술을 내년부터 적용되는 '유로6(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을 이미 만족시키는 수준으로 향상'시켰다. 최근 선보인 BMW의 뉴 2 시리즈 쿠페도 이미 유로6를 충족시키는 뛰어난 친환경성을 갖추었음을 내세우고 있다.

미래의 초점은 무엇일까?

헨리 포드가 20세기 초 현대적인 생산 라인을 구축해 이룬 혁신으로 '모델 T'가 등장한 이래 한 세기가 흐르면서 자동차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된 상태다. 그런데도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르고 더 똑똑한 신제품들이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나온다. 영국 디자인계의 지성인 대안수직이 현재 카 디자이너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새로운 재규어나 미니, 골프를 만들면서도 휠 아치부터 문손잡이까지 모든 혈통적 특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듯이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거듭해나간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MWC에서는 미래형 자동차 신기술도 선보였는데, 현재의 발전 속도대로라면 스마트폰과 '일체형'처럼 연결돼 엄청나게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음성 인식을 자유자재로 하며 자동 평행 주차뿐만 아니라 직각 주차도 자동으로 최적 이뤄질 수 있는 시대를 그려볼 수 있게 했다는 후문이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기술의 상황 평준화 경향이 심화되면 머지않은 미래에는 정보 수단으로서 개개 인과의 '인터랙션이 강화되면서 오락성, 심지어는 거주성(주택이나 회사 대신 차량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는 뜻)까지 갖추는 것은 물론 도시 차원의 시스템과 대화하며 개인의 차량을 하나의 컴퓨터 칩처럼 거대한 네트워크망의 한 요소로서 제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치열한 경쟁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자동차가 일상에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지능적인 도구로 진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또 엔진의 힘을 추구하는 드라이빙이 위험을 달고 다니는 취미적 성향을 강하게 반영하는 행위로 간주될 확률도 높다. 풍부한 현금을 보유한 애플이 겨냥하는 다음 영역이

'스마트 자동차'라는 소문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가. 애플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으로 꼽히는 전기 차 업체 테슬라를 매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는 걸 보면 자동차는 컨버전스 시대를 형성하는 중심축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누구나 도시의 이동하는 세포 역할을 하는 1인용 차량을 신분증처럼 가지고 다니는 미래의 어느 날이 도래한다면, 우리에게 는 하라 켄야의 상상대로 실수투성이 인간에게 운전의 전부를 맡기는 일이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여겨지고, 엔진 차량으로 드라이브하자는 말에 서슴없이 동승하는 호의가 낭만적인 사건으로 비칠지도 모르겠다.

KS 에디터 고성연

master's Timepiece

중력에 맞서 시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한 워치 브랜드의 노력은 수천 년 전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그 중심과 정점은 바로 투르비용(tourbillon)이 있다. 시계의 정확성을 통제하는 시계의 심장부이자 워치메이킹 기술의 최고의 경지를 드러내는 투르비용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맨 위 중앙부터 시계 방향) 보베 미스 안테나드라 투르비용 미스 안테나드라 투르비용 워치는 뛰어난 개방형 케이스로 보베의 시그니처가 되었다. 아름다운 문패이츠와 투르비용을 함께 배치해 심도 깊은 장인 장인이 느껴진다. 사실적인 느낌의 문패이츠를 제작하기 위해 블루 컬러 니켈 삽비 플레이트에 모노로 찍은 듯이 장사해 아름다운 별을 형상화한 장이 돋보인다. 문패이츠 위에 자리 잡은 파워 리저브 핸즈의 이차형 모양은 투르비용 브리지와 대칭을 이룬다. 우아하고 로맨틱한 비주얼은 무브먼트의 복잡함마저 기쁨 있어 보이게 할 만큼 매력적이다. 문의 02-2192-9628

블랑팡 발루레 8 데이즈 투르비용 블랑팡의 시그니처 컬렉션인 발루레 라인의 투르비용 워치. 플라잉 투르비용 무브먼트를 탑재해 하이엔드 감성이 느껴지는 미스터 피사로, 발루레 컬렉션의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과 깨끗한 다이얼, 세련된 케이스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우아함을 발산한다. 시퍼어 글라스로 제작한 백 케이스로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엿볼 수 있다. 문의 02-2118-6474

브레게 클래식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3355PT 6시 방향에 위치한 투르비용은 브레게가 처음으로 개발해 특허를 받은 발명품으로, 세계 최고 워치메이킹의 명성을 증명하는 브랜드의 상징이기도 하다. 핸드와인딩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는 플래티넘 케이스의 3355PT 투르비용 워치는 장인의 섬세한 손길로 완성한 스텝레트 형식의 케이스를 통해 무브먼트의 아름다운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 투르비용과 대칭적으로 위치한 오프셋의 창투윈은 우아한 딥 블루 컬러의 브레게 블루 핸즈와 아우라저 예술의 경치를 드러낸다. 문의 02-3438-6218

파리미지아니 톤다그라프 크로노그래프와 투르비용의 조화로운 배치를 통해 다이얼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워치. 2개의 투르비용 브리지를 제작하는 데만 20시간 이상, 전체 프레이밍을 완성하는 데 40시간이 걸리는 까다로운 작업이기에 워치메이커의 장인 정신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파리미지아니 자체 제작 무브먼트 PF354를 장착해 8일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투명한 백 케이스로 예기치 않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전 세계 10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 보인다. 문의 02-545-1780

카르띠에 발롱 블루 드 카르띠에 플라잉 투르비용 피란 공이라는 뜻의 발롱 블루 드 카르띠에 워치 라인의 투르비용 모델. 조이들을 연상시키는 곡선의 볼륨감과 볼륨한 양면의 강철 케이스는 가볍게 손목에 감겨 마치 손목 위에 떠 있는 느낌을 선사한다. 카르띠에가 개발한 9452MC 칼리버-플라잉 투르비용 무브먼트가 장착되었으며, 투르비용 케이스의 자유로운 움직임과 여유로운 공간감이 매력적이다. 문의 1566-7277 에디터 배미진, 권유진



t h e o r y

fancy Gems

아름다운 형태의 주얼리에 컬러를 더했을 때
 숨겨진 아름다움이 빛난다. 무채색의 여린
 꽃송이 위로 피어난 아름다운 유색석 주얼리의
 화려한 순간. *photographed by yun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용기와 새로운 힘의 상징인 호랑이를 형상화한 비키 사파이어 링, 블랙 골드에 블랙 사파이어를 세팅해 드라마틱하게 완성했다. 3천원대 **부쉐론** 이라미인과 앞서 진주를 매치해 비전틴 분위기를 표현한 비로크 장액션 컴플렉스 네크리스 9천원(72만원), 3.38캐럿의 라운드 컷 블루 사파이어가 돋보이는 비로크 링 7천2백원(인원) 모두 **사설 화인 주얼리**. 크고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과실에서 영감을 얻은 프리 에크조티크 링 1백50만원대 **루시에**, 파스텔 톤의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를 매치해 아름다운 드림 이어링으로 완성한 비로크 이어링 가격 미정 **사설 화인 주얼리**. 관능적인 난초, 모티브의 캐비닛 드 오기 데 바로 캐비닛에 이어링, 라벤더 컬러의 차보아이트를 섬세하게 세팅했다. 9천5백원(인원) **까르미에**, 화이트 골드와 블랙 골드의 조화를 표현한 플라워 모티브 하이 주얼리 시크릿 워치,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 제이드, 칼세도니, 사파이어, 루닛을 자유롭게 배치했다. 가격 미정 **까르미에**, 오벌 세이프의 4.75캐럿 이라미인 센터 스톤을 세팅한 솔리스트 링 가격 미정 **타파니**. 공작새가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있는 모습을 다이아몬드와 에메랄드를, 말티컬러 사파이어로 묘사한 해라 사파이어 링 3천원(인원) **부쉐론**. 진한 핑크 컬러의 사파이어를 아르데코 스타일로 우아하게 세팅한 레가시 컬렉션 링 가격 미정 **타파니**. 유색 스톤으로 장식한 그레이 골드 양탄자를 두르고 있는 인도 코끼리 하티 링, 하늘을 향해 멋지게 들어올린 코끼리 코는 행운을 상징한다. 8천원(인원) **부쉐론**. 1만 개 중 1개 발견될 정도로 희소성이 높은 옐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오벌 링 가격 미정 **타파니**. 에디터 **베이진**

타파니 02-547-9488 루시에 02-512-6914 사설 화인 주얼리 02-3442-0362 부쉐론 02-772-3508 까르미에 1566-7277



loewe.com

LOEWE
 MADRID
 1846

Dari F&S tel. 02 513 2389

Basic Straight Tip 발등 앞쪽에 가로선이 있는 디자인으로, 클래식 슈즈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블랙, 브라운 컬러는 어떤 디자인의 슈즈와도 조화를 이루어 활용도가 높다.



(위에서 아래로) 카키 컬러 스트레이트 팁 슈즈 2백59만원
 벨루타, 블랙 스트레이트 팁 슈즈 2백48만원 브라운, 브라운 스트레이트 팁 슈즈 1백59만원 킷톤, 양말 2천3천원
 브레시안 by 유니테어, 우산 1백40만원 톨 포드, 카펫 1백50만원 데 에르메스.

Light Tassel 스트레이트 팁이나 wing 팁보다 경쾌한 느낌을 주는 태슬 슈즈. 스티칭 장식과 아웃솔을 강조한 태슬 슈즈는 포말한 옷차림의 힘을 빼준다. 따뜻한 계절에 더욱 사랑받는 스타일.



(왼쪽부터 차례대로) 왼쪽에 포인트를 준 브라운 태슬 슈즈 1백90만원
 톨 포드, 아웃솔을 강조한 태슬 슈즈 74만5천원 차리스 by 쿤, 스티치를 가볍게 엮은 태슬 슈즈 1백18만5천원 에르메스도 제나, 양말 2만 8천원
 모두 니란, 우산 18만원 폭스 앰블러라 by 유니테어.

Noble completion

수트의 마침표는 구두에 달렸다. 가장 기본적인 스트레이트 팁부터 포말한 슈즈의 무게를 덜어줄 태슬 슈즈, 화려한 wing 팁 슈즈까지. 신사들의 표적이 되는 유려한 라인의 클래식 구두 컬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Fancy Wing Tip W 형태의 날개 모양으로 발등을 장식한 wing 팁 슈즈. 날렵한 라인과 편치 장식이 옷차림을 화려하게 마무리한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블루 컬러 wing 팁 슈즈 1백만 원대 루이 비통, 양말 1만9천원 알프 로렌 블루 라벨, 브라운 컬러 wing 팁 슈즈 1백30만원 보스, 세련된 명색 기법이 돋보이는 wing 팁 슈즈 1백27만원
 들레안 by 버나, 우산 18만원 폭스 앰블러라 by 유니테어, 카펫 1백50만원 데 에르메스.

Gentle Monk Strap 유럽 수도승의 산발에서 비롯된 Monk 스트랩은 발등을 버클로 장식한 구두를 일컫는다. 요즘엔 상물보다는 더블 스트랩이 각광받는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독특한 문자를 인공피혁의 몽크 스트랩 슈즈 2백30만원 벨루타, 블랙 더블 몽크 스트랩 슈즈 75만2천원 알프 로렌 블루 라벨, 그라데이션이 돋보이는 몽크 스트랩 슈즈 1백30만원
 마스세라 by 본다삼, 짙은 브라운 컬러 더블 몽크 스트랩 슈즈 86만원 발리, 슈폰 6만원 유니테어, 매트 7만5천원
 할리워치 by 라플레아스, 에디터 이예진

에르메스도 제나 02-511-0285 니란 02-737-2885 톨 포드 02-3438-6234 브라운 02-540-4723 킷톤 02-6905-3787 벨루타 02-3446-1895 알프 로렌 블루 라벨 02-6004-0136 본다삼 02-3444-3300 발리 02-3467-8935 보스 02-515-4088 루이 비통 02-3432-1854 유니테어 02-542-0370 들레안 by 버나 02-3444-0077 에르메스 02-544-7722 더클러스 02-3444-9595



www.hamiltonwatch.com

INTO THE DREAM



SEOUL GMT
 AUTOMATIC SWISS MADE
 Limited Edition

HAMILTON
 AMERICAN SPIRIT ■ SWISS PRECISION

IFC Mall HAMILTON 팝업스토어 : April - August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 대전점 센타시티점 롯데백화점 본점 강남점 광주점 구리점 김포공항점 노원점 대구점 대구영블라자점 대전점 동래점 분당점 상인점 센텀시티점 안산점 안양점 영등포점 울산점 인천점 일산점 잠실점 중동점 청량리점 청주영블라자점 평촌점 포항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경기점 센텀시티점 영등포점 의정부점 인천점 충청점 AK플러자 구로본점 수원점 원주점 평택점 현대백화점 본점 동구점 대구점 목동점 무역센터점 미아점 신촌점 울산점 중동점 충청점 키타스점 디류브시티 신도림점 DONGWHA DFS LOTTE DFS MAIN COEX WORLD BUSAN SHILLA DFS SEOUL INCHEON AIRPORT WALKERHILL DFS



Perfect control

이제 남자도 메이크업하는 시대다. 보기 싫은 잡티와 주름을 커버하고 화사한 피부 톤을 선사하는 BB크림과 CC크림을 한번 발라본 남자들은 다양한 효과를 내는 메이크업 크림에 열광한다는 사실. 자연스러운 커버력과 산뜻함을 겸비해 남자의 피부를 책임질 BB크림 열전.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카렐 자저크 비타민 CC크림 SPF 50+ PA+++ 남자들이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티가 나지 않는 자연스러운 컬러일 터. 색소침착까지 케어하는 이 비타민 CC크림은 피부 결점을 커버하는 동시에 자연스러운 피부 톤을 연출해준다. 예민한 피부에 사용해도 좋은 인공 순한 것이 특징이다. 30ml 4만2천원대, 문의 080-022-3332

리리코스 마린 CC크림 SPF 35 PA+++ 해안 산성수를 담은 마린 하이드로 엔젤 엑스와 비타민 복합체를 함유해 풍부한 보습력과 스킨케어 기능을 갖춘 멀티 CC크림. 피부에 자연스러운 광채가 감돌 만큼 촉촉해 피부가 건조하고 칙칙한 남성이 사용하면 만족도가 높다. 깔끔한 흡수력과 끈적이지 않는 마무리감으로 번들거림이 전혀 없고 컬러 또한 자연스럽다. 40g 4만원, 문의 080-023-5454

비오렘 울트라 퍼펙트 BB SPF 50 PA+++ 산뜻하고 가벼운 사용감으로 특히 피부에 유분이 많은 남성에게 추천하는 BB크림. 각종 남성 패션의 뷰티 어워드에서 1등을 차지한 제품이다. 자외선 차단제로 유명한 비오렘의 제품답게 피부 광노화의 원인이 되는 자외선을 차단하고, 피부 톤을 즉각적으로 정리해 주름과 잡티를 자연스럽게 커버한다. 30ml 4만2천원대, 문의 080-022-3332

샤넬 레 베쥬 올인원 헬스 글로우 크림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남성을 위한 헬스 글로우 크림. 자외선 차단 기능을 포함한 오픈 에어 케어 복합체를 풍부하게 함유해 가벼운 뿐만 아니라 항산화와 항스트레스, 피부 진정과 보호 작용을 한다. 피부에 자연스럽고 고르게 발려 특별한 테크닉이 없이도 매끈한 피부를 연출할 수 있다. 30ml 7만원, 문의 080-332-2700

랩 시리즈 BB 틴트드 모이스처라이저 SPF 35 PA+++ 남성 전용 BB크림의 시초로, 처음 출시된 후 세세이션을 일으킨 가벼운 텍스처의 틴트드 모이스처라이저. 비옴 알센을 소화하는 남성들을 위해 보습, 잡티 커버, 유분 조절, 주름 방지 등 열 가지 기능을 하나의 제품에 담은 10 in 1 포뮬러가 가장 돋보인다. 피부에 퍼바르는 순간 첨단 마이크로 캡슐이 분해되어 피부와 어우러져 자연스러운 피부 톤을 선사한다. 50ml 5만5천원대, 문의 02-3440-2774

멜리타 로즈 넥타 BB크림 SPF 15 99% 천연 성분(21% 오가닉 성분)을 함유한 오가닉 BB크림. 비오렘과 자외선 차단제 없이도 건강한 피부에 자연스러운 광채를 선사한다. 피부에 부드럽게 흡수되는 울트라 라이프 오가닉 포뮬러가 스킨케어 제품을 바른 뒤 피부를 편안하게 해주고, 유기능 와일드 로즈 추출물이 피부톤 하루 종일 촉촉하게 유지시킨다. 모공을 막지 않는 스팀성 오일을 사용해 피부 트러블이 없다. 40ml 4만2천원, 문의 02-3014-2950

복사범 엔젤리카 아이리스 틴트드 뷰티 크림 발림성이 좋은 로션 타입의 BB크림으로 가볍고 벨벳같이 부드러운 마무리감을 선사한다. 엔젤리카 워터와 에센셜 오일 성분이 피부 수분 함유량을 높여주어 촉촉하고 부드러운 피부를 연출하고 아이리스 추출물이 모공과 붉은 기, 잡티까지 케어해 안색을 균일하게 연출한다. 라이트, 미디엄 두 가지 컬러로 출시되어 자신의 피부 톤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40ml 4만2천원, 문의 02-3014-2950

비오렘 울트라 퍼펙트 BB SPF 50 PA+++ 산뜻하고 가벼운 사용감으로 특히 피부에 유분이 많은 남성에게 추천하는 BB크림. 각종 남성 패션의 뷰티 어워드에서 1등을 차지한 제품이다. 자외선 차단제로 유명한 비오렘의 제품답게 피부 광노화의 원인이 되는 자외선을 차단하고, 피부 톤을 즉각적으로 정리해 주름과 잡티를 자연스럽게 커버한다. 30ml 4만2천원대, 문의 080-022-3332



www.elord.com / tel 02-3677-8617

Renew. your hair

황사, 미세먼지, 강한 자외선 등이 모발에 직격탄을 날리는 이때, 무실리콘 샴푸와 천연 식물 성분 에센스, 모근 강화 앰플 등으로 가려운 두피와 푸석함에 시달리는 머릿결을 구출할 것.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날이지만 길어진 일조 시간과 강한 자외선, 시베리아에서 몰려온 황사는 피부뿐만이 아니라 머릿결에도 최악의 적이다. 보이지 않던 뽀루지도 올라오고, 피땀결도 까칠해지는 것처럼 두피와 모발 역시 힘을 잃는 마찬가지로, 요즘 유난히 머릿결이 빗겨루처럼 푸석하고 윤기가 자취를 감췄다면 두피부터 살펴볼 일이다. 봄에는 두피가 쉽게 건조해져 계속해서 각질이 생기는데, 이때 두피 스케일링으로 제거 해주지 않으면 트러블이 생기고,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결과적으로 머릿결에 지장을 입히게 된다. 두피를 방지한다면 모발에 트리트먼트를 해봤자 효과가 없다는 얘기. 제너하우스도 산점 정량실 원장은 두피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라 케라스타즈나 모로칸 오일 등에서 나오는 전문 제품으로 충분히 홈 케어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머리 단계에서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되는 머리 윗쪽 부분을 중심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주고 행구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쌓인 각질을 덜어내고 두피를 건강하게 다지는 데 도움이 된다. 두피가 건강하면 비듬이 생길 일도 없죠". 요즘 인기가 높은 무실리콘 샴푸 역시 모발에 인공적인 보습막을 씌우지 않아 건강한 머릿결을 만드는 데 효과적이라고, "건조할 때문에 고민이라면 샴푸 후 린스보다는 마스크가 머무러하기를 추천합니다. 눈에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영양분이 쌓이다 보면 15일 뒤에는 촉감이 확실히 부드러워져요"라고 덧붙였다. 봄에 발을 얹어 1년 농사를 하듯, 지금 두피와 모발을 관여 잘 정리해주면 올 한 해 동안 윤기가 흐르는 청량대는 머릿결을 마주하게 될 것. **에디터 이재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로레알파리 엑스트라 오일대리 오일 미스트 샴푸 전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거나 샴푸 후 머리카락에 즉각적인 윤기와 탄력을 줄 때 사용하는 미스트. 연꽃 추출물이 가는 모발에 힘을 더해준다. 100ml 1만8천원. 존 마스터스 오가닉 스페어민트 & 메도우스윗 스킴프 스테이블라이팅 샴푸 힘을 잃은 모발을 회복시켜 두피의 피지 분비 조절을 활성화하는 두피 샴푸. 숲이 적은 모발에 볼륨감을 더하는 스페어민트와 페퍼민트, 풍년백, 구아 검 등의 성분을 담았다. 236ml 3만6천원. 모로칸 오일 히트 스타일링 프로텍션 드라이어 모발을 말리기 전, 모발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분사하면 뜨거운 바람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해 머리카락이 갈라지거나 끊어지는 것을 막는다. 250ml 3만5천원. 듀크레이 네오티드 로제옹 두피 진문 브렌드 듀크레이에서 추천하는 모근 강화 앰플. 탈모로 연결될 수 있는 각질과 트라볼로 지인 두피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준다. 30mlX3cm 3만9천원. 아몽세 김콜리트 라뉴 더 케어미아 트리트먼트 오일 제주에서 발효한 물레 오일을 99.5% 함유한 트리트먼트 오일. 실론, 셀레이트, 인공색소, 파라벤, 동물성 원료가 일절 들어 있지 않아 얼굴에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다. 30ml 8만원. 아베다 드라이 레미디 모이스처라이징 컨디셔너 수분을 끌어당기는 글리세린과 부피지 오일, 석류, 올리브 오일 등 보습이 풍부한 성분만 모아 건조함을 빠르게 해결해준다. 200ml 3만2천원. 워드보스 칼리먼트 by 스킴프엑스 미치엔. 디사타, 참마, 감태, 감초 등 열기까지 이상 허브 추출물의 트리트먼트 효과로 모발을 보호하면서 자연스럽게 갈라짐을 바꿔주는 헤어 린트. 특허 받은 알레일 브러시 용기라 사용이 간편하다. 115ml 2만8천원. 더 마이부 디스태오가 샴푸 모발의 영양분은 벗겨지지 않으면서 노폐물을 없애주는 극순수 모발용 샴푸. 두피까지 마사지와 5분간 방치 후 씻어내면 더욱 효과적이다. 400ml 8만8천원. 허벌 에센스 클래식 식물성 카모마일 샴푸 코코넛 오일, 일본에 배아, 팜 오일 등 식물 성분을 배합한 무실리콘 샴푸. 거품이 금방 씻겨 내려가 깔끔한 세정감을 느낄 수 있다. 강렬한 성분과 가벼운 향이 어우러진 은은한 향도 매력적. 475ml 1만3천원.

로레알파리 080-565-5678 존 마스터스 오가닉 02-566-9803 모로칸 오일 1666-5125 듀크레이 1899-4802 아몽세 02-2017-4116 아베다 02-3440-2945 스킴프엑스 1566-1140 더 마이부 1544-2053 허벌 에센스 080-023-3333




JACK NICKLAUS
 SINCE 1962

2014 Baselworld

1917년 스위스의 작은 도시 바젤에서 시작된 워치 박람회는 2014년 현재까지 쉬지 않고 시계와 주얼리라는 하나의 테마로 달려왔다. 시계라는 작은 우주가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박람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 인간의 놀라운 집중력이 만들어낸 시간의 예술, 그리고 바젤월드에서 선보인 그 아름다운 결과물인 2014년을 빛낼 새로운 시계들을 소개한다.

inpres C's
Stylish Yamaha Golf



2014년 바젤월드에서 주목할 만한 브랜드



BREGUET
클래식 투르비옹 쿼터웨이
퍼페추얼 3797

2014 바젤월드에서 선보인 새로운 퍼페추얼 쿼터웨이 워치로, 브레게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 사파이어 글라스 인쪽에 시와 분 장치를 들어 올려 새겨는 기법으로 더욱 입체적이다.



BLANCPAIN
빌레레 문페이즈 까루셀
6622L

외형상 클래식한 뿐 아니라 가장 클래식한 시계 기술 중 하나인 까루셀을 정교한 블랑팡의 새로운 빌레레 컬렉션. 블랑팡 고유의 블루 웨이브 패턴이 더욱 빛을 발하는 다이얼 디자인이 특징이다.



OMEGA
스피드마스터 프로페셔널
이폴로 11 탄생 45주년
리미티드 에디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워치,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프로페셔널 크로노그래프 올해 새롭게 선보인 이 모델은 최초의 달 착륙, 달을 향한 여정과 깊은 관련이 있는 오메가를 대표하는 크로노그래프를 기념하기 위해 출시한 모델이다.



HAMILTON
해밀턴 카키 스켈레톤

볼륨감과 인체감, 모던함을 더한 새로운 카키 스켈레톤 워치. 무인판과 실버 색상으로 하이테크적인 요소를 표현했고, 블랙 모텔은 베이시색 디테일과 적갈색 가죽 스트랩으로 현대적으로 완성했다.



TISSOT
티쏘 슈방 데 두벨
스켈레톤

성숙한 디자인과 현대적인 감각, 고정적 기법을 모두 담은 티쏘의 스켈레톤 워치. 핸드 와인딩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해 시계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진화하는 워치메이킹의 신세계

시계의 성지 바젤월드(Baselworld - The World Watch and Jewellery Show)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시계 산업을 완벽히 이해한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년 3월 말 스위스의 작은 도시 바젤에서 열리는 이 워치 박람회는 스케일 면에서 압도적이다. 올해는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일주일간 열렸는데 오로지 바젤월드를 취재하기 위해 모여든 4천여 명의 기자, 14만1000m²의 전시장 규모, 40여 개국에서 참가한 1천5백 개 이상의 브랜드, 100% 예약률을 자랑하는 바젤 내 호텔까지 바젤월드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단지 시계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일반인이라면 입장권을 구매해 부스를 둘러볼 수 있으며 프레스과 바이어라면 사전 신청을 통해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완성된 시계 자체만을 보여주는 다른 박람회와 달리 바젤월드는 시계를 만들 때 사용하는 기계부터 보석 등의 소재, 가공 기술 업체, 완성품까지 시계의 A-Z를 모두 경험할 수 있다. 바젤월드 전시장은 5개의 큰 구조와 총 13개의 홀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럭셔리하고 유명한 브랜드가 모여 있는 메인 홀과 시계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기계만 모인 전시 구역, 주얼리 브랜드의 전시장은 물론 소재가 되는 원석을 볼 수 있는 부스로 나누어져 있다. 구매자 위주의 다이아몬드 가격이 바젤월드에서 결정될 정도로 소재부터 완성품까지 주얼리 워치 업계의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젤월드 전시회장의 운영을 담당하는 실비리터(Sylvie Ritter)는 "이 박람회는 시계 보석 산업의 축소판이며 실제 시계 보석 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든 업체가 이 박람회에 모여 바젤월드가 진행되는 일주일간 관람객들은 최신 트렌드와 혁신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시계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 바젤월드

물론 수많은 기자들이 바젤월드를 방문하고 올해는 국내에서 20여 개 매체, 30여 명 이상의 기자가 취재했지만, 사실 이곳의 꽃은 시계를 구입할 권한이 있는 바이어다. 스위스 시계 산업은 2백20억스위스프랑(약 26조6천억원)의 수출액을 기록하면서 스위스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해 바이어의 바젤월드 방문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젤월드 전시위원장인 자크 J. 뒤센(Jacques J. Duchêne) 역시 워치&주얼리 산업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주요 테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첫째, 지난여름 스위스 의회에서는 워치&주얼리 산업의 근원지인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스위스산(Swissness)'을 인정할 바 있다. 둘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중국이 소비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보충수요를 발동하고 있다." 그의 말처럼 올해 바젤월드의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만큼 해외 바이어, 특히 중국 바이어의 중요성은 스위스 내에서도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개별 방문객은 시계를 구입할 수 없지만, 바이어들은 1년간 판매할 제품을 이곳에서 미리 주문하고 출시 시점에 맞추어 현지에서 전달받게 된다. 국내의 경우 면세점, 백화점, 개별 판매 업체의 대표 바이어가 브랜드 부스 인쪽에 위치한 프라이빗 룸에서 신상품을 착용해보며 새로운 기술과 가격, 트렌드적인 요소를 면밀히 분석해 구매할 제품을 선택하고 수량을 정한다. 워치 브랜드의 1년간의 매출이 이곳에서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모든 브랜드는 수십억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개별 부스를 제작하고, 신제품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디스플레이에 집중한다. 물론 다른 브랜드와 완전히 다른 놀라운 기술을 적용한 시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이제 이 놀라운 시계 박람회인 바젤월드에서 데뷔한 워치 컬렉션을 만나보자.

혁신, 클래식, 우아함의 정수 BREGUET

1747년 스위스 뇌샬(Neuchâtel) 지방에서 태어난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 파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그는 퍼페추얼로 불리는 오토매틱 시계, 미닛 리퍼터 시계를 위한 공 스프링, 최초의 충격 흡수 장치인 패러슈트는 물론 투르비용과 같은 수많은 발명품을 창조해 시계의 아버지라 불린다. 이러한 창립자의 정신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브레게는 워치 브랜드로서 명성을 차분히 쌓아가고 있다.

인체적인 퍼페추얼 캘린더의 데뷔

사과 분, 초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요일과 날짜, 월과 연도까지 알려주는 1백 년의 시간을 담은 워치가 퍼페추얼 캘린더다. 하이 컴플리케이션 기능 중에서도 가장 고난이도의 기술로 인정받는 퍼페추얼 워치를 선보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기술로, 브레게는 브랜드 창립 당시부터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기 위해 퍼페추얼 캘린더를 고안한 바 있다. 퍼페추얼 캘린더 기능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닌 브레게는 올해 새로운 버전의 퍼페추얼 캘린더를 담은 워치, 브레게 클래식 투르비용 콤팩트 퍼페추얼 3797을 선보였다. 이미 클래식 버전의 퍼페추얼 캘린더 모델을 보유하고 있지만, 보다 직관적인 방식으로 읽기 쉬운 것은 물론 미학적이고 인체적인 시계를 새롭게 선보이기 위해서다. 다이얼에 많은 정보를 담으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체적인 단면을 만들어냈다. 사과 분 창틀을 들어 올려 사파이어 디스크 위에 정보를 보여준 것. 사파이어 글라스 안쪽에 원형 창틀을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매우 신선한데, 이를 완성한 공정 역시 굉장히 세밀하고 정교하다. 다이얼만 보아도 알 수 있었지만, 이 복잡한 시계에 장착하기 어려운 투르비용까지 함께 시계해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브레게의 장인들이 섬세하게 완성한 인그레이빙 장식과 화려로운 각자무늬는 시계를 더욱 인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물론, 가독성을 높이는 기능적인 역할까지 한다. 37개의 원형과 투르비용 케이스의 조화로운 매혹적인 퍼페추얼 캘린더 워치를 완성했다.

모던 여성 워치, 레인 드 네이플 프린세스 8968

레인 드 네이플의 클래식 버전 마니어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전할 새로운 모델이 태어났다.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가 가톨릭 유리를 위해 제작한 최초의 손목시계에서 영감을 받은 레인 드 네이플의 우아한 곡선을 담은 상징적인 케이스를 보다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레인 드 네이플 프린세스 8968이다. 올해 바젤에서 새롭게 선보인 레인 드 네이플 프린세스 8968은 한눈에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알아볼 수 있지만 굉장히 모던하고 스타일리시한 타치가 담겨 있다. 클래식한 달걀 형태는 그대로이지만 손목에 더 착 달라붙을 수 있도록 곡선을 가렸고, 긴밀한 다이얼은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더 기대가 되는 모델이다. 볼륨감이 넘치는 과장됨이 없고 착용감이 뛰어나 이 제품을 직접 착용해본 프레스들에게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다. 브레게가 클래식에 인주하지 않고 한 차원 더 모던한 디자인을 선보이려는 노력이 담겨 있고 여성 워치 분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워치다.



1 메인 홀 1층에 위치한 브레게 부스 전경. 2 클래식 투르비용 콤팩트 퍼페추얼 3797. 3 마니어들 디자인의 레인 드 네이플 프린세스 8968. 4 콤팩트 버전으로 새롭게 선보인 가장 작은 투르비용 워치, 클래식 투르비용 엑스트라-플랫 오토매틱 5377.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계 브랜드

BLANCP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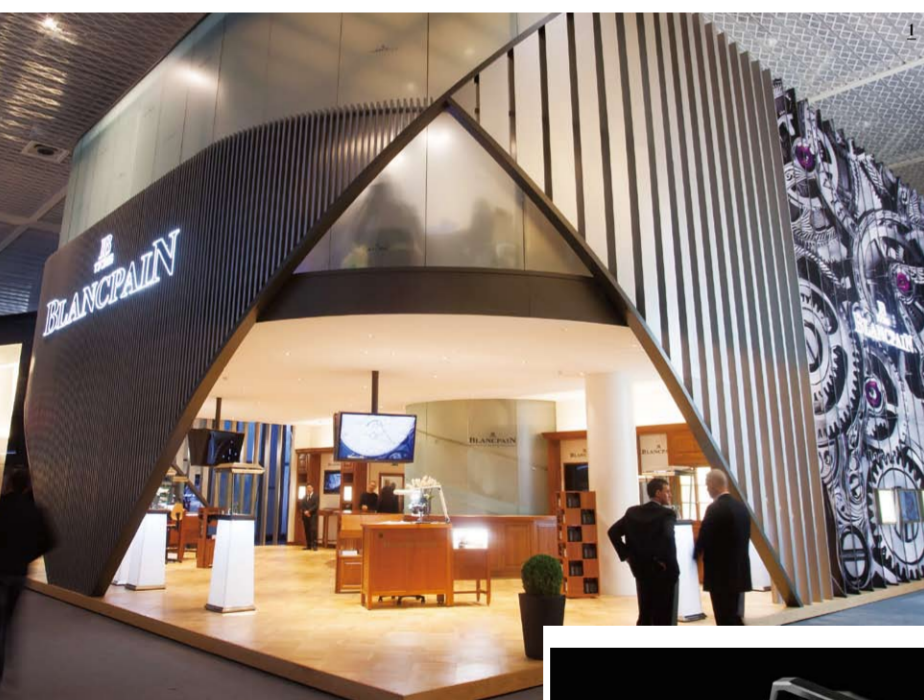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워치메이커 블랑팡은 1735년 스위스 쥐라 산맥의 작은 마을 빌레레(Villeret)에서 탄생했다. 세계대전 기간에도 혁신을 거듭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무브먼트를 적용한 여성 시계 레이디 버드, 세계 최초의 모던 다이버 시계인 피프티 패텀즈와 같이 시계 역사에 길이 남을 제품을 소개한 바 있다.

까루셀과 문페이즈의 만남

블랑팡은 브랜드의 가장 아이코닉한 2개의 컴플리케이션 무브먼트인 까루셀과 문페이즈를 결합해 완전히 새로운 빌레레 라인을 출시했다. 바로 빌레레 문페이즈 까루셀 6622L이 그것.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계 브랜드라는 이름에 걸맞게 블랑팡은 투르비용과 같이 시간 계측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까루셀이라는 구조를 고안한 바 있다. 투르비용의 대중화로 많이 사용되는 않았지만 2008년 블랑팡이 1분마다 로테이션되는 세계 최초의 플라잉 까루셀을 선보이면서 워치메이킹 기술 전면에 다시 등장, 재조명되었다. 이후 2014년 바젤월드에서는 문페이즈, 날짜 표시 기능, 까루셀을 더한 새로운 블랑팡 무브먼트 225L을 탑재한 워치로 재탄생했다. 고온의 오븐에 구워 단단한 에-멜을 만드는 그랑 피 기술을 적용한 에-멜 다이얼의 12시 방향에 까루셀 케이스의 복잡한 메카니즘을 볼 수 있는 창을 뚫으며 6시 방향에는 문페이즈 인디케이션이 장착되어 있다. 다이얼 디자인만으로도 압도적인데, 우아한 로자워와 그 뒤를 은일하게 따르는 날짜 인덱스, 61개의 부품이 볼륨감이 넘치는데도 착용감이 뛰어나다. 섬 없이 돌아가는 까루셀 케이스, 유년극한 표정으로 위용을 과시하는 블랑팡 고유의 문페이즈 디스크까지 클래식을 사랑하는 워치 마니아에게 소유욕을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이다.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를 장착한 바티스카프

다이버 워치의 명가 블랑팡에서 1950년대 후반에 출시한 클래식 다이버 워치 바티스카프(Bathyscaque)는 2013년 재해석된 뒤 올해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를 장착해 새로운 피프티 패텀즈 바티스카프 태어났다. 시간당 3만6천 회의 진동수를 자랑하는 새로운 F385 블랑팡 매뉴팩처 칼리버를 장착했으며 4시 방향의 푸시 버튼을 간단히 누르면 하얀 크로노그래프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의 백 케이스를 통해 실리코너로 만든 항자성 벨런스 스프링을 볼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내부에 외부 장치가 차단을 위해 기계 장치에 두르는 금속판인 패러데이 케이스가 자리하고 있어 실리코너 벨런스 스프링과 완벽 한 궁합을 이룬다. 바티스카프 모델은 블랑팡이 데일리 워치로도 착용할 수 있는 다이버 워치를 개발하기 위해 탄생한 모델이기에 그 역사가 깊은에도 모던하며 실용적이다.



1 유기적인 형태의 블랑팡 부스 전경. 2 블랑팡 매뉴팩처의 모습. 3 빌레레 문페이즈 까루셀 워치의 백케이스. 투명한 창을 통해 무브먼트의 아름다운 움직임을 고스란히 감상할 수 있다. 4 2014 피프티 패텀즈 바티스카프 크로노그래프 플라이백. 5 빌레레 문페이즈 까루셀 워치.



바젤월드의 중심축 OMEGA



바젤월드의 중심축

OME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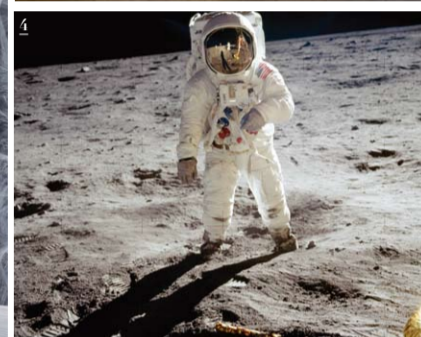
코-엑시얼이라는 놀라운 무브먼트로 여성 워치에까지 오토매틱 무브먼트의 가치를 부여한 오메가. 획기적인 기술력과 혁신적인 신소재, 미학적인 비전을 담은 오메가의 위치는 많은 이들이 진정한 시계를 만날 수 있게 하는 대중성을 지닌 럭셔리 브랜드다. 올해는 스피드마스터 프로페셔널 아폴로 11 탄생 45주년 리미티드 에디션, 드 빌트 레저를 선보이며 진정한 브랜드의 정신을 보여주었다.

달과 오메가의 영원한 인연, 스피드마스터 리미티드 에디션

2014년 바젤월드에 가장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인 오메가. 새로운 컬렉션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오메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스피드마스터 프로페셔널 아폴로 11 탄생 45주년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1969년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2명의 NASA 우주인인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은 인류 최고의 기술적 진보를 성취했고, 오메가는 이 순간을 함께했다. 스피드마스터 프로페셔널 아폴로 11 탄생 45주년 리미티드 에디션은 최초의 달 착륙과 달을 향한 여정에 참여한 오메가의 히스토리를 기념하는 모델로, 그레이 계열의 독특한 컬러가 특징이다. 패브릭 소재의 나토 스트랩을 매치한 것만으로도 상당히 신선한 비주얼을 선사하는데, 브러시 처리한 42mm 그레이드 2 티타늄 케이스의 그레이 컬러와 포인트가 되는 골드 컬러는 달과 아폴로 11호의 컬러를 연상케 한다. 3시 방향의 30분 카운터, 6시 방향의 12시간 카운터, 9시 방향의 스몰 세컨즈 서브 다이얼을 갖춘 블랙 PVD 다이얼은 특별한 레이저를 사용해 완성했다. 스크루-인 케이스 백에는 상징적인 해마 엠블럼이, 바깥쪽 위에는 달 착륙을 기념하는 문구와 달에 착륙한 연도에서 영감을 받은 1천9백69개 한정 판매 제품의 시리얼 넘버가 새겨져 있다.



1 스피드마스터 프로페셔널 아폴로 11 탄생 45주년 리미티드 에디션. 2 1층 메인 홀 중심에 큰 규모로 자리 잡고 있는 오메가 부스 전경.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3 뉴 컨스텔레이션 플루마. 4 1969년 달 착륙은 오메가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5 달 착륙 시에 사용했던 진정한 원 워치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마크 II의 초기 디자인. 6 2014년 바젤월드에 선보인 스피드마스터 마크 II. 오렌지 컬러 다이얼 모티브에서 오메가의 아이덴티티를 느낄 수 있다.



클래식 크로노그래프,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마크 II

앞서 소개한 스피드마스터 프로페셔널 아폴로 11 탄생 45주년 리미티드 에디션이 과거에 한정하는 워치라면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프로페셔널 크로노그래프는 말 그대로 진짜 문 워치다. 달의 표면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우주인의 시계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해 오메가는 새로운 모습의 스피드마스터 마크 II를 소개했는데 보다 정제된 디자인의 케이스를 적용한 모델로, 일명 '문 워치' 안에 장착되었던 것과 동일한 우주 테스트를 거친 핸드와인딩 칼리버 1861을 탑재하고 있었다. 올해 이를 재해석해 새로운 스피드마스터 마크 II를 다시금 선보였다. 새로운 버전에는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탑재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타기미터 눈금을 적용했다. 배럴 형태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는 폴리싱 처리한 크라운과 푸셔를 장착했고 10시 방향에는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데이트 코렉터가 있으며, 다이얼 위에는 30분 카운터, 12시간 카운터, 스몰 세컨즈 서브 다이얼이 어우러져 다이얼을 멋지게 장식한다. 아이코닉한 디자인, 빈티지 워치의 매력을 느끼고 싶고 시계 역사를 사랑하는 오메가 마니아라면 열광할 만한 디자인이다. SI14 실리코너 벨런스 스프링과 칼럼 휠 크로노그래프 메카니즘을 갖춘 셀프와 인딩 무브먼트 코-엑시얼 칼리버 3330을 탑재해 소장 가치가 높다.

여성을 위한 코-엑시얼, 오메가 뉴 컨스텔레이션 '플루마'

여성 오토매틱 워치 분야에서 리딩 브랜드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오메가는 올해 브랜드를 대표하는 컨스텔레이션 라인에 깃털이라는 모티브를 담아 뉴 컨스텔레이션 '플루마(Pluma)'를 선보였다. 여성용 워딩 워치로도 각광받는 컨스텔레이션 컬렉션은 해마다 새로운 버전으로 변신하는데 올해는 27mm의 클래식한 사이즈에 내추럴 화이트, 골드, 샴페인, 블루 컬러를 담은 머더오브펠 다이얼을 매치해 우아함을 극대화했다. 특히 블루 다이얼은 화이트 머더오브펠 조각 아랫부분을 블랙 페인트로 코팅하는 남다른 기법을 활용한 만큼 그 아름다움이 더욱 특별하다. 다이얼 위에 인그레이빙 한 부드러운 곡선 패턴은 깃털의 부드러운 라인을 연상케 하고, 머더오브펠 다이얼 위에 자리한 11개의 다이아몬드 인덱스는 더없이 아름답다. 예술성이 돋보이는 다이얼 디자인 덕분에 시계의 완성도가 높아졌다. 클래식의 정점에서 새로운 컨스텔레이션 라인의 상징이 되어준 것은 코-엑시얼 칼리버 8520. 뛰어난 내구성과 성능을 자랑하는 무브먼트로 100m 방수 기능까지 갖췄다.

현실에서 만나는 혁명적 무브먼트, 마스터 코-엑시얼 칼리버

기술적 진보를 담은 다양한 컬렉션을 선보이며 바젤월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오메가. 올해는 지난해 선보인 아이큐아터 15000가우스 워치에 장착해 선보인 항자성(antimagnetic) 무브먼트인 마스터 코-엑시얼 무브먼트를 모든 신제품 시계에 적용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다. 이전 코-엑시얼 칼리버와 비교해 15000가우스 이상의 자성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새로운 무브먼트를 빠르게 산업화해 상용화한 것은 대형 브랜드의 노하우와 자력 덕분에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상용화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기에 보다 현실적으로 대중이 늘리는 기술을



누릴 수 있도록 빠르게 움직인다. 1999년 선보인 코-엑시얼 무브먼트인으로도 기히 혁명적이라 인정받았는데 여기에 항자성 무브먼트 기능까지 더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완벽한 무브먼트의 가능성을 열었다. 이 특별한 무브먼트 패키지는 마스터 코-엑시얼 칼리버 8400/8401, 8500, 8511, 8520로 기존에 자성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식과 달리 케이스 내부에 특별한 보호 장치 없이 무브먼트 자체에 반자성 성질을 지닌 소재를 사용했다. 2008년 선보인 SI14 소재의 실리코너 벨런스 스프링이 이 무브먼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마스터 코-엑시얼 무브먼트를 장착한 모든 시계에 4년간 품질을 보증한다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무브먼트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전통을 기반으로 한 혁신 TISSOT

스위스 쥐라 산맥의 르 로클(Le Locle) 지역에서 탄생한 티쏘는 브랜드 로고의 형태가 스위스 국가 마크와 동일할 정도로 스위스의 아이덴티티와 핵심을 표현한다. 1853년 이래 계속되어온 브랜드의 신뢰와 필리터를 입증한다. 스위스 시계 산업의 세계 최대 제조 회사이며 유통 회사인 스위치 그룹의 일원인 티쏘는 시아클, 럭비, 펜싱, 아이스 하키 세계 선수권 대회 공식 파트너이자 타임키퍼로 활약하고 있다.

티쏘 슈망 데 투렐 스키텔레톤

놀라운 정도로 다채로운 컬렉션과 눈을 의심할 정도의 합리적인 가격대로 매력적인 워치 라인으로 선보이는 티쏘. 그중에서도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티쏘 슈망 데 투렐 스키텔레톤은 가격 대비 최고의 제품이라 자부할 수 있다. 이 특별한 제품명은 시계가 최초로 창조된 장소에서 착안한 것으로 1907년 티쏘 공장이 세워진 거린인 슈망 데 투렐(Chemin des Tourelles)은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다. 최초의 거리에서 이름을 따온 만큼 1백60년 이상 축적된 워치 기술을 반영한 모델로 내부가 그대로 들여다보이는 스키텔레톤 형태의 무브먼트를 통해 시계 제조의 예술성을 드러낸다. 이 시리즈에 영감을 얻어 포켓 워치인 메카니컬 스키텔레톤 시리즈가 제작되었는데, 핸드와인딩 형식의 메카니컬 무브먼트를 그대로 볼 수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를 매치했다. 문자판 위에 우아하게 새겨진 아라비아숫자들은 회중시계의 역사에 대해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진다.

티쏘 퀵스터

전 세계 유명한 스포츠 경기 대회에서 10년 이상 타임키퍼로 명성을 떨쳤기에 2014년 바젤월드에서 퀵스터 라인을 론칭하고 그중 축구에 특화된 퀵스터 풋볼 라인을 선보였다. 'Be the Timekeeper'라는 슬로건 아래 하프 타임과 오버 타임이 있는 축구 경기의 시간을 측정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한 무브먼트를 창조해낸 것이다. 이 무브먼트가 장착된 시계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관전자거나 타임키퍼로서 경기에 직접 참가할 수 있다는 역동적인 콘셉트를 선보인다. 제품 디자인은 축구 경기에서 볼 수 있는 저지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전 세계 모든 곳의 컬러를 담고 있다. 알라뮈 배럴은 모델에 따라 다양한 컬러로 선보이며 케이스 뒷면에는 축구공과 축구 단체의 로고 등 축구 경기의 특징에서 영감을 받은 이미지가 새겨져 있다. 티쏘 특유의 생동감과 다양성, 시계를 소유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스포츠 플레이어로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든 티쏘만의 매력을 그대로 담은 컬렉션이다.



1 생동한 컬러 시리즈를 선보인 티쏘의 퀵스터 풋볼 컬렉션. 2 화려한 디자인으로 눈길을 사로잡은 티쏘의 부스. 바젤월드에서도 가장 인기 높은 브랜드 중 하나이다. 3 티쏘 스키텔레톤 시리즈 중 역사 깊은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은 포켓 메카니컬 스키텔레톤. 4 티쏘 슈망 데 투렐 스키텔레톤.



아메리칸 히스토리나 스위스 무브먼트의 자부심 HAMILTON

1982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랭커스터에서 설립된 워치 브랜드로, 세계 최고의 정교함을 자랑하는 최신 스위스 무브먼트의 기술력을 갖추었다. 4백여 편의 할리우드 영화에 등장할 만큼 혁신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며 항공 워치로서의 역사도 깊어 자부심이 높다. 꾸준히 자사 무브먼트를 선보이며 세계적인 워치 브랜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기술을 넘어서는 미학적 카키 스키텔레톤 워치

해밀턴은 올해 바젤에서 브랜드의 대표 제품인 해밀턴 카키 스키텔레톤의 기술을 한 차원 끌어올린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였다. 국내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은 카키 스키텔레톤에 더욱 대담한 타치를 더한 것. 문자판을 가로지르는 X형 프롤라에서 크리스탈 위를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로고까지 담은 이 스포티한 워치는 마치 3D 효과를 준 것처럼 입체적인 매력을 지녔다. 프로펠러 날개를 담은 4개의 오스가 문자판의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별진 모양의 각인, 투톤의 바늘, 역동적인 디자인의 무브먼트가 일체미를 선사한다. 50m 방수 기능에 H-20-S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기존 디자인보다 더 단단하고 무게감 있는 완성도를 선사한다.

독점 무브먼트로 새롭게 거듭난 해밀턴

2014년 해밀턴은 새로운 네 가지 무브먼트 H-10, H-30, H-40, H-22를 선보인다. 이들 중 H-22를 제외한 세 가지 무브먼트는 최대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하며 배럴에서 탈진하기 전까지 전체적으로 개선된 역동적인 체인 덕분에 편리함과 정확도가 높아졌다. 이 무브먼트 3종 모두 전통적인 소재를 사용했고, 오노 블록 로터는 H 패턴과 항공기에서 영감을 받은 컷아웃으로 독특하게 스키텔레톤 처리되어 있다. 이 중 H-30 무브먼트는 올해 새롭게 선보인 파워 리저브 80시간의 강력한 파워를 지닌 판 유럽(Pan Europ) 모델에 장착되었다. 이 시리즈는 세계 최초의 오토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중 하나를 장착했던 1971년 모델을 그대로 반영해 스포티하게 완성해 워크엔드 모델로 제작이다. 화이트 리플렉터가 있는 블루와 그레이 다이얼, 블랙 가죽 스트랩과 폴딩 버클, 스트라이프 나토 스트랩 핀 버클은 강력한 파워 리저브를 갖춘 무브먼트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H-22 무브먼트는 스몰 세컨드 무브먼트로 다이얼 디자인에 혁신성을 더해 해밀턴의 아이덴티티를 담았다. 올해 최초로 레일로드 스몰 세컨드를 적용한 모델을 바젤월드에서 선보여 극찬을 받았는데 8시 방향에 스몰 세컨드 카운터를 비대칭으로 워치시커 기준의 모델과는 다른 삼미자 효과를 준다.



1, 2 오픈지 컬러아라비아숫자로 눈길을 사로잡은 해밀턴 부스 전경. 3 새로운 스키텔레톤 무브먼트를 선보인 해밀턴 카키 스키텔레톤. 4 화려한 다이얼이 각진 로고로 아이치며 알라뮈 링으로 된 최신 배럴의 돌을 잡아주는 현대적이면서도 모던한 판 유럽 컬렉션. 다양한 소재의 밴드를 매치할 수 있다.



Big 5 Watches

에코 모드를 구현하는 최첨단 태양열 워치부터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온 에나멜 기법을 사용한 클래식 워치까지. 시계는 그 긴 역사를 이어갈 뿐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약한다. 새로운 시계가 바젤월드를 통해 인상적인 데뷔 무대를 치를 때마다 브랜드의 가치는 높아지고 워치 마니아들의 열정은 더 뜨거워진다. 2014년 바젤월드에서 선보인 워치들 중 주목할 만한 신제품 워치를 소개한다.

진정한 기계식 워치를 원하는 여성들을 위한 헌사 브레게 클래식 담프 9068

사존으로서는 여성 워치라는 것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클래식 기법을 담고 있는 클래식 담프 9068 워치. 마리 앙투아네트, 나폴리의 여왕 카롤린 유리를 포함한 브레게의 저명한 여성 고객 리스트를 살펴보면 브레게가 워치하고 격조 높은 여성 워치에 얼마나 많은 노후를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브레게가 여성 시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존재하는 남성 워치에 보석을 세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처음부터 여성을 위한 메카니컬 무브먼트를 장착한 시계를 선보였기 때문이다. 슬림한 라인의 클래식 담프 9068 여성 워치는 깔끔한 언진 타겟 패턴 다이얼의 아름다움과 배젤과 라그에 세팅한 다이아몬드가 어우러져 우아한 자태를 자랑한다. 실리온 밸런스 스프링을 장착한 기계식 무브먼트를 적용해 여성들용 최고의 무브먼트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역시 특별한 점이다.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세팅한 홀 장식의 플루티드 케이스 밴드, 배젤과 라그에 887개의 브릴리언트 컷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하게 마무리했다.

심플함, 그것이 전부 블랑팡 빌레레 8데이 그랑 피 에나멜 다이얼

워치의 극치라 할 수 있는 블랑팡의 2014년 새로운 빌레레. 브랜드가 탄생한 지점에서 이름을 딴 클래식 기법에 블랑팡 그 자체를 이어가려는 이 새로운 모델은 날짜 표시 외에도 모든 디테일을 철저히 최고급 시계 예술 기술인 그랑 피 에나멜 다이얼을 갖춘 셀프와인딩 스리 핸드 시계를 선보인다. 고운 오븐에 구워 단단한 에나멜을 완성하는 기법인 그랑 피를 다이얼에 사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블랑팡이 가장 오래된 시계 브랜드로서 전통적인 시계 제조 기술을 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기법은 광채가 뛰어나고 깊이감이 느껴져 수세기 동안 유지된다. 고운에서 여러 개의 연속적인 층을 만들어가며 칠하는 과정을 거친 후 에나멜 칠을 다한 로마숫자 인덱스 또한 고운의 용광로에서 엄격한 공정을 거친다. 이 다이얼에는 특별한 비법이 숨겨져 있는데 인덱스 III와 V, 그리고 VI와 VIII 사이에 블랑팡 창립자 예한-자크 블랑팡(Jehan-Jaques Blancpain)을 의미하는 'JB' 로고를 다이얼과 동일한 톤으로 인그레이빙해 빛의 각도에 따라 은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

왕의 귀환 오메가 클래식 씨마스터 300

오메가가 마치 007 시리즈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워치인 씨마스터 300을 2014년 바젤월드에서 선보였다. 오메가는 1957년 다이버와 심해 전문가를 위해 씨마스터 300을 소개한 바 있는데, 이 클래식한 바지에 최신의 기술을 탑재해 새롭게 선보인 것. 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배젤과 다이빙 눈금, 블랙 다이얼 위 밝은 인덱스, 커다란 바늘과 숫자는 다이버에게 유용한 요소다. 50년이 넘게 지난 지금 이 최초의 다이버 워치를 다시 업그레이드했는데,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블랙 세라믹 다이얼, 골드와 팔라듐을 혼합해 만든 독특한 소재, 인덱스 아래 면에 에나멜을 더해 굴곡진 표면을 완성한 것이 특징이다. 씨마스터 300을 통해 오메가는 새로운 2개의 뛰어난 메카니컬 무브먼트 마스터 코-엑시얼 칼리버 8400/8401을 장착했다. 이전 코-엑시얼 무브먼트에 비하면 높은 정확성, 정밀성, 신뢰성을 갖춘 것은 물론 오메가의 혁신적인 항자성 기술력을 탑재하고 있기에 15000가우스 이상의 자성을 견디는 것은 물론 300m 방수, 4년간의 품질 보증을 제공한다. 특허 받은 랙-앤드-푸시 클래스프 역시 눈길을 사로잡는데, 여러 가지 워치로 조절 가능한 브레이슬릿은 푸시 버튼을 누르고 인쪽 클래스프를 원하는 위치로 밀면 브레이슬릿을 조절할 수 있다. 새로운 씨마스터 300은 클래식 모델의 계보를 그대로 이어받아 대칭을 이루는 케이스, 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배젤, 질은 컬러의 다이얼, 다양한 바깥 상황에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고안한 밝은 칼리버 인덱스와 숫자, 커다란 바늘까지 고전적 DNA를 그대로 답습한다.

남자들의 열정을 그대로 담은 대담한 리미티드 에디션 해밀턴 카키 테이크 오프 오토 크로노 리미티드 에디션

바젤월드에서 만난 수많은 새로운 워치 중 남성 소비자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흔들었던 매력적인 모델, 해밀턴의 참신성과 과감함이 돋보이는 모델로 세계적인 국제 비행 조종사 니콜라스 아브노프와 함께 선보인 카키 테이크 오프 오토 크로노 리미티드 에디션(Khaki Take off Auto Chrono Limited Edition)은 항공기 계기판과 구조에서 영감을 받았다. 옆의 사진에는 시계만 있지만 리미티드 에디션을 구매하면 실제 계기판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독특한 한정판 패키지를 제공하는데, 워치 다이얼을 분리해 이 패키지에 장착하면 마치 조종석 계기판을 직접 마주하는 듯한 느낌을 얻을 수 있다. 작은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시계는 쉽게 분리되고 그대로 함께 제공되는 계기판 패키지에 간단하게 장착해 탁상시계로 사용할 수 있다. 해밀턴 H-31 무브먼트는 정시간 운영을 위해 파워 리저브가 60시간에 달하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제품의 외관을 그대로 반영해 메인 칼리는 블랙이고 표시는 가시성 높은 옐로를 선택했다. 1천9백99개 한정 판매한다.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을 담은 티쏘 티-터치 엑스퍼트 솔라

혁신적인 기술과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꾸준히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티쏘. 1999년 이미 터치스크린 시리즈를 창조해낸 워치 브랜드의 선구자다. 지금까지 티쏘는 태양에너지로 구동되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시계를 선보이는 최초의 회사이며 이를 통해 시계 제조에서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기술 분야의 선두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문자판 위를 비추는 태양광 라이트는 슈퍼 루미노바 기술을 채용한 인디케이터와 초침, 분침을 모두 빛나게 하고 시계의 어쿠물레이터를 충전하는 역할을 한다. 마치 자동차처럼 에코 모드에 있는 것이 특징인데 착용자가 시계를 차고 있지 않을 때 자동으로 에너지 절약 모드가 작동한다. 외부적인 태양열 에코모드와 내부 내부 에코 모드로 더블 에코를 채용할 수 있다. 에디터 배버린



(왼쪽 위부터 아래로) 브레게, 오메가, 블랑팡, 해밀턴, 티쏘

2014 S/S Men's Trend Report

보다 다채로운 패턴과 레이어링, 소재의 접목이 돋보이는 2014 S/S 남성 컬렉션에서 채집한 11개의 키워드에 주목하라. 프린트를 능수능란하게 매치하는 기술, 테일러드 슈트와 결합한 쇼츠, 여유로운 실루엣이 스타일링의 열쇠가 되어줄 것이다.

trend 1. Blue Men

이토록 다양한 블루 코발트 블루부터 녹색이 도는 셀룰러 블루, 차가운 일렉트릭 블루, 터쿠이즈, 스카이 블루, 파스텔 블루까지. 옷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블루 컬러가 런웨이 위에 올랐다. 특히 스리 버튼 재킷과 셔츠, 타이팬티, 니나 슈즈와 클러치 백까지 블루 컬러를 톤오트 매치한 룻방은 이번 시즌 블루 슈트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에 대한 가장 좋은 예를 제시하니 참고할 것.

trend 2. Sweet Boys

남자 역시 마음에 걸릴만한 좋은 계절, 봄에는 부드러운 파스텔컬러 아이템 하나쯤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마크 제이콥스나 베르사체처럼 핑크 슈트를 한 벌로 입는 것도 멋지지만 파스텔컬러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한국 남성들은 시도하기 어렵다고 토로할 수밖에. 바버리 프로섬, 폴 스미스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너 웨어는 화이트로 선택하고, 그 위에 달콤한 파스텔컬러의 재킷과 후디를 레이어링할 것. 런웨이의 스타일링을 현실로 가져오는 쉬운 방법이다.

trend 3. Floral Garden

여성 컬렉션에서 풍겨온 향긋한 꽃 내음이 남성복까지 이어졌다. 고호의 작품을 연상시키는 이본드 나무나 사이프러스를 비롯해 허와이안 히비스쿠스 등 종류와 크기가 다채로운 꽃밭이 등장한 것. 가장 세련된 방법으로 프린트를 믹스하는 드레스 반 노트는 고급스러운 색감과 회화적인 터치가 느껴지는 꽃무늬 셔츠와 팬츠, 밀리터리 코트를 실크, 니트, 시스루 등 다양한 소재에 접목했으며, 구찌 역시 열대 지방의 야자수나 열대 등을 유머러스하게 재해석한 꽃무늬 록을 울이나 카드 모에와 같은 고급스러운 코트 소재에 녹여냈다. 아틀고 중 후한 컬러를 바탕으로 한 덕분에 꽃무늬 셔츠와 셔츠를 겹쳐 입어도 과하지 않게 느껴질 정도.

trend 4. All Over Print

꽃무늬 다음으로 많이 보이는 프린트는 스트라이프, 도트 그리고 체크 순서. 일단 줄무늬는 간격이 넓어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모스카노, 발렌티노, 우영미, 자황시 등 파리의 디자이너들은 컬러 블로킹이 돋보이는 큼직한 스트라이프를 아로새겼다. 그러나 울여름을 위한 줄무늬는 두꺼운 것으로 선택할 것. 에르메스의 핀 도트 슈트부터 크리스 반 이세의 플라 도트, 바버리 프로섬의 코인 도트까지 크기와 간격을 재기적으로 표현한 물방울 무늬와 몬드리안의 그림을 연상시키는 이세이 미야케, 날 바렛의 기하학적 인체 패턴도 놓치지 말 것.

trend 5. Blouson Days

그 어느 시즌보다도 다양하게 해석된 블루즈는 쿨한 남성들에게 가장 많은 러브콜을 받을 것이 분명할 듯. 블루즈라고 하면 니업론이나 코트, 모직 등이 주요하게 쓰였지만 울블렌 가죽과 스웨이드, 실크 등의 소재로 고급화 전략을 취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생로랑은 1970년대 자유분방한 영 스트리트 감성이 그대로 묻어 나는 록 스타 룻을 선보였으며, 루이 비통은 스웨이드 소재의 몸판에 악어가죽 소재를 믹스해 구조적인 향미를 완성했다. 보테가 베네타의 티마스 마이어는 부드러운 스웨이드와 윤기가 흐르는 송아지가죽, 트릴 등의 소재에 섬세한 핸드메이드 스티칭을 더해 비즈니스 웨어로서의 블루즈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단연 돋보인다. 하리와

영양이 사이에서 끝나는 짧은 길이인 만큼 다리 길이 때문에 고민인 남성들에게 훌륭한 프로포션을 선사할 가장 강력한 무기임이 분명할 듯.

trend 6. Tunic Power

반듯하게 네모 카툰한 티셔츠는 이번 시즌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아이템이다. 중동 지역에서 편안하게 입는 튠닉 스타일이 올해 하이 패션에서 훌륭한 커버업 아이템으로 등장했으며, 울여름엔 티셔츠 한 장으로도 드레스 업과 다운을 낼 수 있는 절호의 시즌임을 가늠하자. 소재와 컬러, 프린트 등 어떤 디자인이든 좋지만 실루엣은 자신의 체형보다 한두 치수 큰 오버사이즈로 선택할 것. 가죽의 질감과 형태를 강조한 구찌, 어깨의 라인을 떨어뜨린 슬림트 솔더에 트롬프리 유 기법으로 리멜을 그려 넣은 보테가 베네타 등의 컬렉션에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들쳐맨티는 이번 시즌 박시한 튠닉 룻에 무한 애정을 드러냈는데, 그리스 신화에서 영감을 얻은 고대 지도와 벽화, 제우스, 아폴로 등을 고전적인 화풍으로 프린트해 눈길을 끌었다.

trend 7. Oversize Shorts

무릎부터 허벅지까지 시야를 오르내리는 길이의 오버사이즈 쇼츠가 캐주얼은 물론 스포츠 룻까지 정했다. 보통 카디건 상의에는 슬림한 팬츠를 입어 실루엣을 조절하는 게 기본이지만, 이번 시즌엔 바지 역시 발걸음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드는 여유롭고 볼륨감 있는 스타일을 매치하자. 차민이가 심을 정도로 폭이 넉넉한 실루엣의 팬츠를 들고 나온 폼 데 가르송이나 질 샌더, 말단을 율리한 크리스 반 이세, 메탈릭한 소재의 오버사이즈 쇼츠를 선보인 펜디, 슬림한 재킷에 미디 길이의 쇼츠를 매치한 페라기모의 모던한 스타일링을 참고할 것.

trend 8. Summer Coat

지중해성 기후대인 이탈리아의 남성들에게 롱 코트는 시즌리스 아이템이다. 그러나 뜨거운 여름도 예외는 아닐 터, 에르메네제오 제노의 첫 번째 컬렉션을 마친 스테파노 팔라티는 이번 시즌 컬렉션을 설명하는 "니른함을 드러내기 위해 무릎을 덮는 긴 코트를 선택했다. 뉴트럴 컬러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코트, 스카이 블루, 코렐, 세이지 그린 등 톤 다운된 컬러와 캐시미어 실크, 실크 등 천연 소재를 가볍게 가공한 롱 코트는 걸을 때마다 물 흐르듯 유연하게 나풀대며 우아하면서도 여유로운 제나 신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펜디, 구찌, 드리스 반 노트의 아노라 형태의 코트 역시 젯세터의 여유로움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trend 9. Technical Sportswear

이제 스포티즘은 트렌디라기보다는 테일러드 슈트와 팬츠처럼 클래식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지난 몇 시즌을 돌아보더라도 런웨이 전황에 빠진 스포티한 무드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디자이너들은 소재와 디테일, 컬러 블록, 실루엣 등을 어떤 방식으로 믹스해 스포티즘을 보여줄지 고민할 때다. 이번 시즌엔 스포티즘 전형을 대변하며 더 이상으로 떠오른 카골(cagoule)이 주목하라. 비바람을 막기 위해 얇은 모자가 달린 긴 외투를 뜻하는 카골은 첨단 소재를 접목해 페라기모와 랑방, 겐츠, 에르메노 쉐비노, 바버리 프로섬 등에서 모던한 하이브리드 패션을 완성한 일 등 공산이다. 스마 바지의 디테일을 채용한 트랙 팬츠는 울블 구찌에서 꽃을 피웠는데, 방수 가죽을 트링밍한 아노라 접퍼와 네오 프렌 후디, 워드 브레이커와 매치해 런웨이 전반에 액티브한 감성을 불어넣었다.

trend 10. Leather Weather

여름과 겨울 소재의 경계가 허물어진 지금, 두 시즌 전부터 가죽은 겨울보다는 여름에 더 많이 등장하는 소재가 되었다. 허우스 아틀리에 장인의 노련함으로 인공을 없애고 소재를 가능한 한 알맞게 만드는 가공법을 거쳐면 여름을 위한 가죽 완성 레퍼미 돌돌 말릴 정도로 얇은 가죽 재킷을 선보인 조르조 아르마니, 재킷과 쇼츠 슈트를 한 벌처럼 모두 가죽으로 완성한 디올 옴, 가죽의 부드러운 질감을 강조한 셔츠형 재킷을 선보인 에르메스만 보더라도 가죽은 이제 여름과도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trend 11. Ultra Slimming Cuts

젊고 감각적인 무드가 런웨이 전반을 채운 이번 시즌엔 슈트 역시 그 변화의 흐름에 동참했다. 에르메노 쉐비노의 더블브레스트 재킷이나 보테가 베네타의 그레이 싱글 버튼 슈트, 톨체만티바의 턱시도 슈트 등 런웨이에서 울린 대부분의 슈트와 재킷의 라펠은 모두 얇고 사뿐하게 재단되어 있었다. 얼굴이 크고 날씬한 동양인에게는 얇은 라펠이 치명적인 수도 있기에 하이 웨이스트 팬츠로 실루엣을 울리고 V라인 길이 파인 디자인을 선택할 것이 허위 요령. 남성복에 잘 쓰이지 않는 시폰, 사틴, 리메 소재는 특유의 광택과 질감으로 이브닝 웨어의 드레스한 무드를 고조시켜줄 것이다. 에디터 이예진

Technical Sportswear: GIUCI

Summer Coat: ERMEVEGIEDOZEGNI

Leather Weather: DIOR HOMME

Blue Men: LANVIN

Oversize Shorts: PAUL SMITH

Ultra Slimming Cuts: JIL SANDER

All Over Print: GIVENCHY

Tunic Power: DOLCE & GABBANA

Floral Garden: PRADA

All Over Prints: LOUIS VUITTON

Sweet Boys: BURBERRY PROSUM

Blouson Days: CALVIN KLEIN COLLECTION

Catch it Bags

옷, 구두보다 여자가 집착하는 건 바로 가방이다.
이런 시즌 어떤 잇 백이 그녀의 레이어망에 포착되었을까.
photographed by kim moo il



(남) 가죽 라이더 재킷, 패턴 셔츠, 핑 스트라이프 팬츠, 블랙 앵글부츠 모두 생로랑. (여) 레드 재킷과 팬츠, 골드 소프트 리키 백, 블랙 스트랩 힐 모두 할프 로렌. 화이트 셔츠 엘프리오 아르마니, 검지에 킨빈지 미네타니.



(여) 블루 슬리브리스 원피스, 블랙 하운즈투스 포인트 슈즈, 패치워크 장식의 디올리프 블랙 백과 화이트 레이드 디올 백 모두 디올, 볼드한 귀고리 피버리쉬 언더티.
(남) 화이트 재킷과 팬츠, 블랙 셔츠 모두 조르지오 아르마니, 화이트 버클 슈즈 생로랑.



(남) 베이지 트랜치코트, 블루 셔츠, 네이비 팬츠, 블랙 타이 모두 제나구피르 컬렉션 by 스테파노 필라티.
(여) 블루 레이스 원피스, 그린 체인 베일리 토트백, 레드 체인 베일리 토트백 모두 글로에, 드림형 귀고리와 검지, 중지 착용한 반지 모두 스위로브스키.



(남) 블랙 재킷과 팬츠, 화이트 셔츠, 스카이 블루 타이
모두 **버버리 프로섬**, 카무플라주 스니커즈
쥬세페 지노티, (여) 민트 카디건, 스카이 블루 시스루
레이스 셔츠와 스커트, 레드 오자드 백, 플라워 장식의
디어 스킨 패탈 클러치 백, 레드 스트랩 힐
모두 **버버리 프로섬**, 감자와 종지,
약자에 긴 볼드한 링 모두 **피버리쉬 엔 너티**.



시스루 톱, 레드 큐브 톱
미니드레스, 시스루 와이드 팬츠,
실버 퍼팩, 스트랩 젤리 슈즈,
실버 & 블랙 투주르 백, 레드
그라데이션 투주르 백 모두 **텐디**.

(여) 비즈 페이스 패턴 드레스, 오렌지 비즈 장식 초커, 블루 스웨이드 비즈 장식 힐, 나스, 오렌지 뱅글, 비즈 뱅글, 그린 사피아노 토트백, 페이스 패턴 사피아노 토트백 모두 프라다,
(남) 블루 수트, 화이트 셔츠 모두 휴고 보스, 레오파드 슈즈 지미츄,



(여) 아티스틱 포인트 레드 톱, 스트라이프 스커트 모두 샬린느, 블루 크로스 백, 그레이 토트백 모두 엘포리오 아르마니, 크리스탈 귀고리 저스틴 데이비스, 개츠비 브레이슬릿 미네타니,
(남) 블랙 톱, 화이트 팬츠 모두 랄프 로렌,

스카이 블루 재킷과 팬츠, 셔츠, 그레이 힐, 스카이 블루 D-큐브 크로스 미니 백, 태슬 장식의 화이트 셀라백 모두 토즈, 이어링 미네타니,



헤어 강현지
메이크업 김은주
모델 객지영, 김영, 장가용, 변우석, 남주혁, 이석찬, 박병민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어시스턴트 김혜인
에디터 권유진

생로랑 02-3438-7627
랄프 로렌 02-545-8200
엘포리오 아르마니 조르지오 아르마니 02-549-3355
미네타니 02-3443-4164
다울 02-513-3232
피버리쉬 엔 터티 02-790-3041
제나 꾸뛰르 컬렉션 by 스테파노 필라티 02-511-0285
토즈 02-3438-6008
골로에 02-543-1737
스워브스키 02-3395-9096
버버리 프로섬 02-3485-6583
쥬세페 지노티 02-543-1937
팬디 02-2056-9023
프라다 02-3218-5331
휴고 보스 02-2014-9178
지미츄 02-3443-4570
샬린느 02-3440-1547
저스틴 데이비스 02-518-0049

* 본 화보에 나온 제품의 상세한 가격 정보는 (스타일 조신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tylechosun.com

Gentle suits

정통 이탈리아 남성복 브랜드 팻질레리가 그들의 클래식한 아이덴티티를 담은 다양한 웨딩 수트를 선보인다. 결혼 준비를 앞둔 예비 신랑의 예복부터 양가 아버지의 수트, 결혼식에 참석할 때 무엇을 입어야 할지 늘 고민하는 남자를 위한 하객 스타일링까지. 이탈리아의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테일러링과 감각적인 컬러, 고급스러운 소재의 삼위일체로 완성된 컬렉션을 눈여겨보자.



팻질레리의 세련된 웨딩 수트 컬렉션

따뜻한 봄별과 실랑대는 바람, 만개한 꽃이 거리에 가득한 이 계절엔 웨딩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지금 백화점 신사복 매장은 결혼을 앞둔 신랑을 위한 예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을 위한 예복을 선택할 때는 정통성 있는 수트 브랜드이면서 고급스러운 소재와 세련된 실루엣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예전에는 예복을 선택할 때 연미복이나 턱시도를 대어했지만, 요즘은 결혼식을 계기로 고급스러운 수트를 구입해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통 이탈리아 수트 브랜드 팻질레리에서는 매년 다양한 라인의 예복 수트를 선보이며 예비 신랑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가장 클래식한 디자인은 물론 체크, 핀 스트라이프 등 잔잔한 프린트를 더한 수트까지 다채롭게 선보이며 예복 스타일의 범위를 넓혔다. 이탈리아에 기반을 둔 수트 브랜드인 만큼 컬러와 프린트를 세련된 방법으로 믹스하는데, 화이트 셔츠와 블랙 수트의 기본적인 조합에는 타이의 질감에 변화를 주어 약간의 포인트를 더하고, 젊은 예비 신랑에게는 화려한 패턴의 타이와 체크 셔츠 등으로 밝고 경쾌한 스타일을 제안하기도 한다. 패턴 셔츠와 타이의 너무 캐주얼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팻질레리의 고급스러운 컬러와 소재의 수트와 어우러지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팻질레리의 풀(Pull) 라인인 예복 수트는 클래식 라인에 비해 허리둘레와 가슴둘레를 2~3cm 정도 좁게 재단한 슬림한 실루엣이 특징이다. 가슴에서 허리로 이어지는 유연한 곡선이 몸을 편안하게 잡아주어 착용감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감각적인 스타일을 완성한다. 예비 신랑만큼이나 손님맞이에 분주한 신랑과 신부의 아버지 역시 품격 있는 옷차림이 필수다. 팻질레리는 양가 아버지를 위해 클래식한 디자인을 강조한 사토리아레(Satoriale) 컬렉션을 제안하는데, 주머니와 안감 버튼 등 세세한 디테일에도 심혈을 기울여 완벽한 착용감을 선사하며, 캐시미어, 비큐나, 1백70수 이상의 슈퍼 울 소재 등 최 고급 원단으로 품격을 드높였다.

감각적인 이탈리아의 감성을 담은 하객 스타일링

결혼식에 참석할 때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건 여자뿐만이 아니다. 포털사이트에 남자 하객 패션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쇼핑몰과 관련 이미지가 셀 수 없이 올라와 있다. 그만큼 격식을 차리면서도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하객 복장을 선택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가장 무난한 선택은 포멀한 수트지만 블랙, 네이비, 그레이 등 솔리드 컬러의 수트 차림이 봄에는 어딘지 칙칙한 느낌을 준다. 팻질레리에서는 자신만의 스타일과 세련된 취향을 지닌 남자를 위해 가벼운 소재와 세련된 컬러를 적용한 블레이저 컬렉션을 제안한다. 포멀한 수트에서 힘을 덜어낸 경쾌함과 역동성이 엮여 보이지만 클래식한 실루엣을 더해 비즈니스 캐주얼 룩으로도 제격이다. 저중해의 아름다운 빛깔을 그대로 담은 듯한 블루, 핑크 등 화려한 컬러 팔레트로 선보이며, 땀 흡수와 통기성이 좋은 리넨이 섞여 있어 상쾌한 착용감까지 선사한다. 여기엔 타이를 생략하고 화려한 패턴의 행커치프를 마무리할 것. 세련된 이탈리아 신사들의 왼쪽 가슴에는 늘 행커치프가 있을 만큼 팻질레리의 감각적인 스타일링을 위한 필수 아이템이다. 문의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3479-1956, 고객센터 1599-0007 에디터 이예진



1, 2 정통 이탈리아 남성복 브랜드 팻질레리의 수트 컬렉션.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완벽한 테일러링과 고급스러운 소재, 깊은 컬러로 남다른 품격이 느껴진다. 3 팻질레리는 수트와 블레이저 등 다양한 룩에 화려한 행커치프를 포인트를 주는 스타일링을 제안한다. 트리아앵글 폴드 방식으로 연출한 행커치프는 캐주얼한 블레이저에 잘 어울린다. 4 유연한 구조로 착용감을 높인 클래식 슈즈.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이라 활용도가 높으며, 브라운 컬러를 멋스럽게 가미한 명색 가발이 돋보인다. 팻질레리의 수트와 함께하면 마무리까지 완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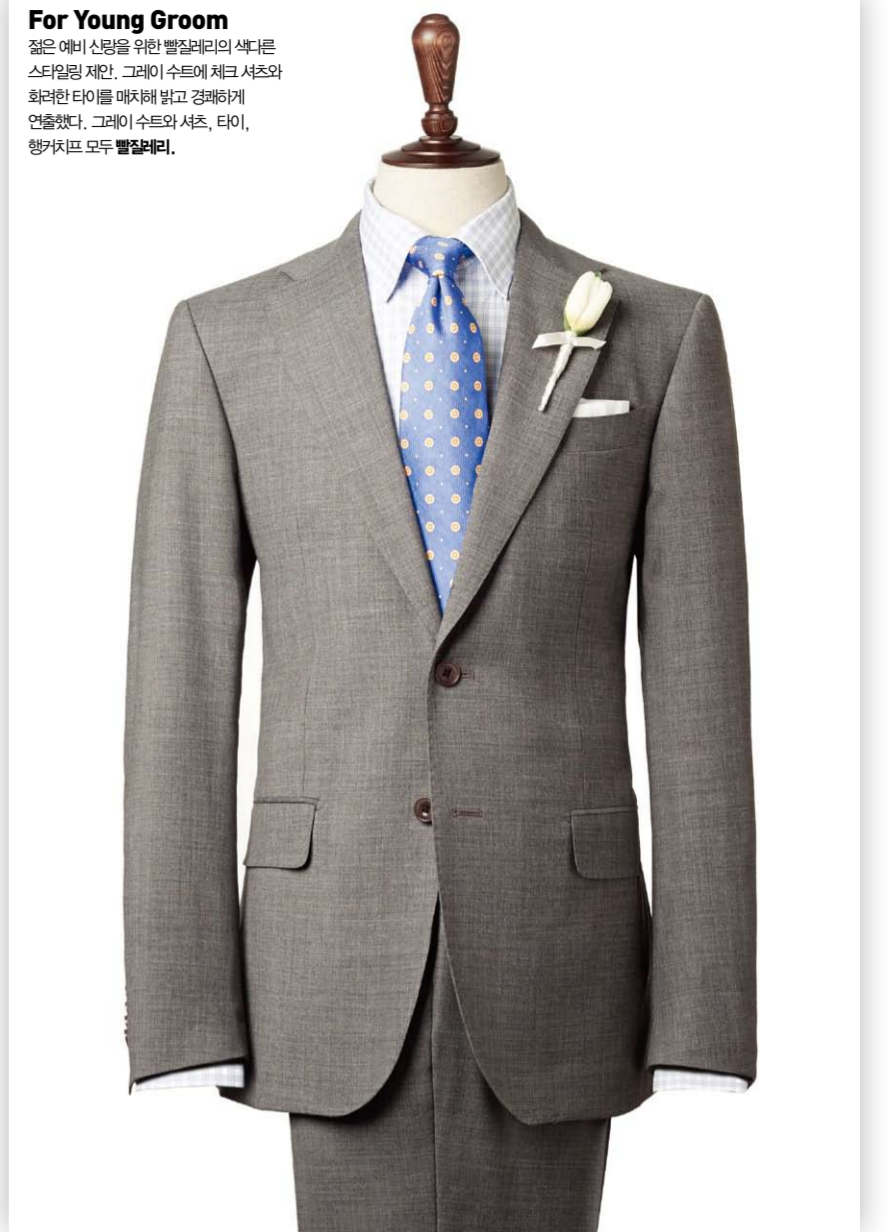
Groom's Suit

젊은 예비 신랑의 상급 버튼 수트에 화이트 셔츠를 매치한 가장 기본적인 예복 스타일. 질감이 도톰한 사선 체크 패턴 타이로 단정하게 마무리했다. 수트와 셔츠, 타이 모두 팻질레리.



For Young Groom

젊은 예비 신랑을 위한 팻질레리의 새로운 스타일링 제안. 그레이 수트에 체크 셔츠와 화려한 타이를 매치해 밝고 경쾌하게 연출했다. 그레이 수트와 셔츠, 타이, 행커치프 모두 팻질레리.



Elegant Classic

신랑 신부의 아버지를 위한 팻질레리의 수트 컬렉션. 클래식한 빅 체크 패턴 수트에 얇은 블루 셔츠와 패이플리 무늬 타이로 젊은 감성을 더했다. 체크 수트와 셔츠, 타이 모두 팻질레리.



Italian Chic

젊은 감성이 느껴지는 가벼운 블레이저와 스트라이프 셔츠, 노타리로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하객 스타일링. 화려한 패턴의 행커치프를 마무리했다. 블레이저와 셔츠, 팬츠 모두 팻질레리.





New legend,

J12-365, 의미심장한 찰나를 담다

바젤월드 전시장 1층의 중심부에 위치한 샤넬 부스에 들어선 순간 수영장 물속을 가로지르는 탄탄한 몸의 실루엣을 아름답게 담은 동영상에 눈을 사로잡았다. 뒤이어 모델의 모습에 오버랩되며 2014년 새로운 컬렉션 J12 위치의 바늘이 오전 6시 정각을 가리킨다. 샤넬 블랙 트윈드 재킷을 입고 파리의 거리를 활기차게 걷는 아름다운 여성의 뒤를 따라 온, 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오후 4시 35분을 가리키는 J12-365 위치.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할까. 본래 신제품 위치의 광고 비주얼은 대부분 브랜드 로고가 가장 잘 보이는 10시 10분에 맞추어져 있지만 샤넬은 이 고정 관념을 거스르며 새로운 시간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3백65일 일상 생활을 즐기는 현대 여성을 타깃으로 한 콘셉트의 워치인 만큼 광고 비주얼 속 시곗바늘은 일률적으로 맞춰져 있지 않고 모두 상황에 맞는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것. 시계는 단순히 액세서리나 기계가 아닌 삶의 가치와

인생의 찰나를 기록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새로운 의미를 되새긴다. 샤넬의 위치는 우리가 지나치는 순간순간을 기록하는 진정한 시계로서의 기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바젤월드라는 거대한 위치 박람회장에서 오로지 기술의 진보와 까다로운 테크놀로지, 화려한 세공법을 내세우는 라 간파하고 있던 진정한 시계의 기능, 시간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 든 것이 샤넬 위치라는 사실은 매우 놀랍다.

혁신과 반전의 아이콘, 샤넬 J12

2000년 샤넬이 과거에 대한 향수와 기계식 시계에 대한 진지함으로 가득한 위치 시장에 블랙 세라믹 소재의 J12 컬렉션을 선보였을 때 시장의 반응은 극단적이었다. 과연 세라믹이 럭셔리 소재로 기능할 수 있는가? 물론 지금은 수많은 브랜드가 세라믹 소재를 활용한 위치를 주요 컬렉션으로 선보이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세라믹은 까다로운 공정에 비해 가치를 인정받



L'INSTANT CHANEL



L'INSTANT CHANEL

New moment

쟁쟁한 위치 브랜드와 그 이름을 나란히 하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한 샤넬 위치. 올해 샤넬은 새로운 위치만을 선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간의 가치와 의미를 재정의하며 새로운 시간의 콘셉트를 선보였다. 3백65일 모든 인생의 순간을 즐기는 현대 여성을 위해 J12-365 컬렉션을 선보인 것. 길을 나설 때, 어딘가로 떠나는 순간까지도 모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 36.5mm 지름의 시계 위에 그 가치가 새겨진다. 이렇듯 기존의 위치와는 전혀 다른 노선을 걷는 브랜드이기에, 2014년 바젤월드에서 새롭게 선보인 샤넬 365 컬렉션은 오직 샤넬만이 구사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간의 언어다.

고 있으므로,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진정한 의미를 지닌다. 샤넬 위치는 바로 그 순간을 더욱 특별한 매력으로 빛나게 한다라는 콘셉트로 샤넬 위치 컬렉션이 내포한 고유한 비전을 드러낸다. 바젤월드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이 광고 캠페인은 간결하게 구성되었지만,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에 전시장을 찾은 이들에게 강력한 임팩트를 선사했다. 부스 한가운데에 위치한, 한옥의 중정을 연상케 하는 공간의 가장 큰 벽을 캔버스 삼아 상영하는 광고 영상은 심플하고 명쾌하며 모던하다. 부스 전체의 벽을 장식한 광고 캠페인의 이미지 하나하나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축약했고, 인생의 순간을 따라 샤넬 위치가 모든 찰나에 동행한다는 것을 각인시켰다.

새로운 소재, 완벽한 디자인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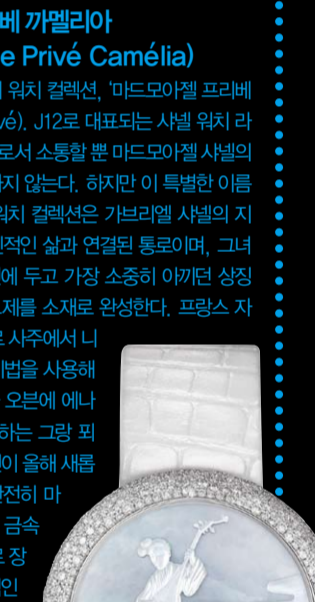
바젤월드에서 선보인 2014년을 위한 샤넬 위치에는 새로운 콘셉트는 물론 한 번도 본 적 없는 소재와 디자인, 기법을 더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베이지 골드와 탄생. 지금까지 수많은 브랜드들이 브랜드 고유의 독자적인 골드 컬러를 탐구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샤넬은 그 접근 방법부터 달랐다. 단순히 새로운 골드 컬러에 집착하기보다, 세라믹 소재의 톤에 비해 지나치게 화려해 보이는 옐로 골드나 로즈 골드 외에 새로운 골드 컬러가 필요하다고 판단, 독자적으로 새로운 컬러의 골드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옐로 골드보다 차분하고 로즈 골드보다는 골드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갖춘 베이지 골드는 블랙과 화이트 세라믹에 차분히 어우러진다. 베이지 골드는 올해 첫선을 보인 J12-365에 가장 먼저 적용되었고, 이후 광택감을 느낄 수 있는 터너블 세라믹 소재의 샤넬 J12 크로메티카 베이지 골드의 매지는 강력한 대비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베젤에 베이지 골드를 더한 J12 크로메티카 위치에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매지한 버전은 J12의 극적인 변신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2013년 화이트 J12 이후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주는 밀리터리 모티브의 J12-G10 역시 놀라운 결과물이다. 영국군의 지갑품이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군용 스트랩 워치인 G10의 모습을 샤넬의 페미닌한 화이트 버전 J12에 접목해 지금

1 지난 3월 27일부터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시계&주얼리 박람회 '바젤월드' 메인 홀 1층에 위치한 샤넬 부스 전경. 블랙과 화이트만 사용한 심플한 디자인의 부스가 샤넬의 아이덴티티를 담고 있다. 2 36.5mm라는 의미 깊은 다이얼 사이즈가 특징인 샤넬의 새로운 J12-365 컬렉션 위치. 오직 여성만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첫 번째 J12 위치로 여성들의 손목에 딱 맞는 사이즈다.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탑재해 진정한 시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3, 6 올해 6월부터 소개될 샤넬의 새로운 '엘스팡 샤넬' 광고 캠페인. J12 위치와 다이아몬드 세팅된 프리아미르 바늘이 각기 모델의 상황과 행동에 맞는 시간에 맞추어져 있다. 4 샤넬의 뉴 골드, 베이지 골드를 매지한 J12 크로메티카 베이지 다이아몬드 세팅 버전. 5 영국군용 워치인 G10을 그대로 페미닌하게 해석한 J12-G10. 스트랩의 버클 장식이 밀리터리 모티브의 여성미를 조화롭게 담아냈다.

까지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J12 시리즈를 완성했다. 밀리터리 워치메이킹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G10을 여성 위치에 접목했다는 것은 매우 신선한 도전으로, 악어 가죽 스트랩에 매지한 버클 장식은 샤넬이 수많은 모티브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놀라운 크리에이티브를 담고 있는지 확인하게 한다. 이렇듯 샤넬은 콘셉트와 결과, 디자인,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이제 바젤월드는 샤넬이 고안한 시계와 소재, 컬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수십 년간 패션 하우스라는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관습을 넘어서는 새로운 제품을 내놓은 결과, 지금 샤넬 위치는 바젤월드에서 패션 하우스를 넘어 위치 브랜드로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풍부한 유산과 혁신적인 정신으로 샤넬이 위치 업계에서 더 많은 반전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에디터 배미진

마드모아젤 프리베 까멜리아 (Mademoiselle Privé Camélia)

눈을 사로잡는 주얼리 워치 컬렉션, 마드모아젤 프리베 (Mademoiselle Privé). J12로 대표되는 샤넬 위치 라인은 오로지 시계로서 소통할 뿐 마드모아젤 샤넬의 유산을 과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특별한 이름의 주얼리 워치 컬렉션은 가브리엘 샤넬의 지극히 개인적인 삶과 연결된 토크이며, 그녀가 주변에 두고 가장 소중히 아꼈던 상징과 오브제를 소재로 완성한다. 프랑스 자수 공방 르 사주에서 나온 파인팅 기법을 사용해 완성한 버전과 오븐에 에나멜을 구워 완성하는 그랑 피에 공법을 활용한 컬렉션이 올해 새롭게 선보였다. 그중 완전히 마르지 않은 래커 위에 금속 기둥이 다양한 재료로 장식되는 일종의 전통적인



마키에(makie) 기법을 활용한 마드모아젤 프리베 까멜리아 컬렉션은 단연 압권. 마키에 기법은 소수의 브랜드만이 도전할 수 있는 어려운 기법이다. 에나멜 장인, 세공 장인, 조각 장인, 세팅 장인 등 각 분야 최고의 마스터 장인들의 손에서 탄생한 마드모아젤 프리베 컬렉션은 샤넬의 독창성을 감상할 수 있는 캔버스이며, 파인 워치메이킹과 하이 주얼리의 장인 정신을 일컫는 '메티에 디르(métier d'art)' 기법을 더해 그 어떤 브랜드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예술성을 선보인다.

마드모아젤 프리베 코로망델 다이얼 세트

한 쌍의 마드모아젤 프리베 워치를 블랙과 화이트의 대비를 느낄 수 있는 세트로 구성된 한정판 디자인. 스위스에서 특별히 제작한 모델로 3.88캐럿에 달하는 6백39개의 다이아몬드를 스노 세팅한 베젤이 아름답다. 18K 옐로 골드 다이얼에 체네바 공법을 이용해 완성한 그랑 피에나멜 미니어처에 다이아몬드를 장식한 버전과 머더오브펠을 조각해 다이얼을 세심하게 완성한 버전이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마드모아젤 프리베 까멜리아 마키에 다이얼

18K 옐로 골드 케이스에 60개의 브랑리엔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주얼리 워치. 블랙 래커에 옐로 골드로 동백꽃 모티브를 표현했다. 웨일 에그셀을 사용한 세송이의 동백꽃 장식이 아름답다.



2

3

6

editor's Pick

브랜드의 베스트 셀러 에센스와 마스크부터 최신 메이크업 제품인 CC크림과 멀티 스틱, 파운데이션 팩트까지. <스타일 조선일보> 에디터의 취향을 엿볼 수 있는 추천 코즈메틱은 바로 이것.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크라크 모이스춰 써시 CC크림 스킨 캠펙트 SPF 30/PA++ 보습, 자외선 차단, 피부 톤 보정의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캠펙트 타입의 CC크림. 세 가지 색상의 마블 패턴이 한데 어우러져, 스킨피로 토크 두들기만 하면 예쁜 피부가 완성된다. 10g 3만2천원(베리콜), 1만원(대키아스). 문의 02-3440-2773_by 에디터 권유진

비오렐 CC크림 화이트 기존에 사용하던 BB크림이 어둡게 느껴져 바루게 된 CC크림이다. 광채를 부여하는 로즈, 붉은 기를 커버하는 그린, 우윳빛 피부로 만들어주는 화이트 등 총 세 가지로 선보인다. 비오는 즉시 피부가 화사해지는 것은 물론 물을 머금은 텍스처로 촉촉하고 가벼운 피부 표현을 완성할 수 있다. 30ml 4만2천원. 문의 080-022-3332_by 에디터 권유진

샤넬 코코 마드모아젤 오 드 파르페 신선한 향기 자체를 즐기고 싶다면 추천할 만한 향수. 샤넬의 향수는 강렬한 첫 향기 뒤에 은근한 우아함을 숨기고 있는데 이 향수 역시 마찬가지다. 물론 무거운 향기는 배제하고 오로지 신뜻하고 순수한 원료만 사용해 가볍고 활기찬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50ml 14만2천원. 문의 080-332-2700_by 에디터 배미진

클레르보 부메 오트 에글라 장코르 확실한 윤기를 원하는 여성에게 추천하는 립스틱. 일반 립스틱보다 훨씬 촉촉한데 이쁘고 트로 오일이 들어 있어 입술 주름을 완화한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여배우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으로 자연스러운 컬러로 구성되어 있다. 2g 7만5천원. 문의 02-3438-6032_by 에디터 배미진

랑콤 립 러버 러버(Lover)라는 이름만큼이나 사랑스러운 컬러와 반짝임이 가득한 립스틱. 큐티클 화살 모양의 에몰리엔터가 입술을 정확하게 감싸주어 건조함을 없애고 손쉽게 사랑스러운 입술을 연출할 수 있다. 4.5ml 3만6천원. 문의 080-022-3332_by 에디터 권유진

클리닉스 바이 리프팅 에센스 두루뭉술한 얼굴 라인 때문인지 리프팅 에센스를 반드시 사용한다. 허벅지에도 리프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차는 속도가 더디며 한 움큼 걸쭉한 텍스처와 물살이 한층 걸쭉한 느낌이다. 이마, 눈, 턱 선으로 이어지는 클리닉스만의 오묘 마자기를 줄이면 더욱 효과적이다. 50ml 8만8천원. 문의 080-542-9052_by 에디터 이예진

베네피트 메이비 베이비 평소 달콤한 향수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상쾌한 꽃 향과 복숭아 향이 처음부터 끝까지 부드럽게 이어지는 화이트 플로럴 향에 마음을 뺏겼다. 게다가 지금은 봄이니 겨우내 썼던 묵직한 향기는 날아들며, 50ml 5만2천원. 문의 080-001-2363_by 에디터 이예진

모로코 오일 인텐스 하이드레이팅 마스크 오일로 유명한 모로코 오일에서 출시한 헤어 마스크 팩. 소량만 사용해도 끈적임 없이 머릿결이 풍성해지는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염색으로 건조해진 모발에 특효다. 250ml 4만9천원. 문의 1666-5125_by 에디터 배미진

코레스 립 버터 플럼 마음에 드는 립틴을 찾기가 은근히 어려운데, 이 립 버터는 건조해도 굳지 않게 잘려주고 끈적이지 않는다. 특히 가벼이 컬러 중 물감은 노란 기가 도는 인쇄와 따로 놀지 않고 적당한 핑크를 더해 해 가장 만족스럽다. 6g 2만3천원. 문의 02-6205-8989_by 에디터 이예진

복사암 이온드 디리샤스 핸드크림 잔기개를 방문한 비르셀로나 시크 아로캣에서 스위치 사재기를 했던 제품. 이온드라고 하면 고소한 향이 연상되는데, 여기에 진한 바닐라와 우유를 배합한 듯한 오묘한 향이 매력적이다. 이온드 트리와 꽃에서 추출한 오일이 가뭄이든 손을 매끄럽게 만든다. 30ml 1만3천원. 문의 02-3014-2965_by 에디터 이예진

라 메르 SPF 50 UV 프로텍팅 플루이드 PA+++ 촉촉한 텍스처가 강점인 자외선 차단제. 주름 개선 인종을 받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수분감이 뛰어나고 신뜻하다. 좋은 스쿠너어 제품을 만드는 노하우가 담겨 있는 스킨케어 제품과 그 수준이 다르다. 50ml 15만2천원. 문의 02-3440-2775_by 에디터 배미진

슈에무라 UV 언더베이스 무스 포어레이저 이 제품만 꾸준히 사용하는 마니아가 많을 정도로 베이스계의 신기원을 연 무스 베이스. 슈에무라의 베이스 제품들은 모두 신뢰도가 높는데 다양한 텍스처의 무스 베이스 중 모공 케어 효과가 있는 제품이다. 화려한 패키지는 영화감독인 마키의 환상적인 세계가 담긴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50g 5만3천원. 문의 080-022-3332_by 에디터 배미진

프래쉬 크림 앵바는 앵바시 나리싱 마스크 무즈를 여는 순간 진한 꿀 향이 코를 스친다. 알고 보니 이 마스크에는 화장품 최고 수준의 꿀 함유량인 38%의 퓨어 해가 들어 있다고. 꿀 성분이 얼굴에 보습력을 형성해 피부를 더욱 촉촉하게 가꾸준다. 100ml 21만원. 문의 080-822-9500_by 에디터 권유진



Enjoy, brow bar

한번 경험해본 사람들은 달라진 인상과 그 깔끔함에 매료되어 꾸준히 찾게 된다는 베네피트의 브라우 바. 에디터 역시 3주에 한 번은 반드시 방문할 정도로 자타공인 브라우 바 마니아다. 베네피트의 왁싱 서비스에 증폭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놀라운 변화에 대한 취재기.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국내 최초의 눈썹 왁싱 서비스, 베네피트 브라우 바

<스타일 조선일보> 애독자라면 3주에 한 번씩 세 번에 걸쳐 베네피트 브라우 바를 경험한 에디터의 후기를 기억하고 있을 터. 기사를 쓴 이후 반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달라진 인상과 깔끔함 덕분에 계속해서 브라우 바를 방문하고 있다. “눈썹 왁싱은 거의 중독에 가깝다”라고 한 브라우 엑스퍼트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음을 몸소 경험한 것이다. 에디터와 브라우 바의 첫 만남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롯데백화점 본점에 처음 문을 연 베네피트 브라우 바는 눈썹 관리만을 위한 공간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그 당시엔 생소한 개념이었음에도 눈썹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길이 없었던 여성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선사하며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베네피트의 성공에 힘입어 다른 코즈메틱 브랜드와 에스테리어에서도 눈썹 왁싱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문성과 인지도에 있어서는 대적하기 어려울 정도다. 베네피트라는 글로벌 코즈메틱 브랜드에서 진행하는 왁싱 서비스이기도 그 가치를 더하는데, 1976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오픈한 후 38년 동안 오로지 눈썹만을 다룬 노하우가 뒷받침되어 신뢰도가 높아졌다. 지금까지 전 세계 50개국에서 8백 개 이상의 브라우 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왁싱 서비스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구축되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 교육을 받은 브라우 엑스퍼트가 개개인에게 맞는 눈썹을 설계해줄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공간에서 청정한 도구만 사용한다는 점도 높은 만족도에 한몫을 한다. 지난해에는 충청과 광주, 울산까지도 오픈하며 이제 전국 어디에서나 28개의 매장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브라우 바의 인기를 증명하는 대목이다.

에디터, 브라우 바에 중독되다

기사를 위해 경험한 브라우 왁싱이 지금까지 멈출 줄 모르고 이어지는 데는 나에게 어울리는 형태의 잘 다듬은 눈썹이 주는 힘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세련된 인상과 얼굴형, 심지어 자신감까지 심어준다. 눈썹 왁싱의 개념이 생소한 이들은 지저분한 부분을 눈썹 칼로 해결하면 된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눈썹 칼은 모발의 단면을 잘라낼 수 있지만 형태를 잡아준다거나 눈썹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반면에 베네피트의 브라우 왁싱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엑스퍼트가 일대일 상담을 통해 각자에게 맞는 처방전을 내린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르다. 에디터의 경우 눈썹 끝이 내려와 우울하고 쳐져 보이기가 쉬운 인상이 고민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눈썹 산이 없어 평생 아치형 눈썹은 꿈도 못 꾸겠구나 했는데, 엑스퍼트의 얘기는 달랐다. 눈썹 꼬리 쪽의 처진 부분을 정돈하면서 각도를 서서히 올리면 부드러운 아치형 눈썹을 연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섯 번의 왁싱을 거친 지금은 눈썹 산부터 꼬리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각이 부드럽게 생겨 평면적으로 보였던 인상이 세련된 느낌으로 바뀌었다. 눈과 눈썹 사이에 잔털이 없어 공간이 시원하게 트이면 서 얼굴형이 슬림해 보이는 효과도 덩으로 얻었다. 립 왁싱도 마찬가지. 왁싱을 거듭할수록 거뭇한 입 주변이 환해지고 털이 나는 속도가 확실히 더디지만 아니라 얇게 나기 때문에 올라오는 솜털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점이 만족스럽다. 더불어 요즘엔 남자들도 눈썹 왁싱을 꾸준히 받는다는 엑스퍼트의 말을 듣고 작심이 놀랐다. 외모를 열심히 가꾸는 그루밍 기이뿐만 아니라 깔끔한 눈썹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남성들은 여자보다도 더 높은 충성도를 자랑한다고. 30대 중반을 향해 가는 남자 친구에게 처음으로 눈썹 왁싱을 권했더니 인상이 정돈되어 자신감이 생기고 심리적인 만족감이 커 꾸준히 받고 싶다는 답변을 들려 주었다. 남자가 무슨 화장이나며 가벼운 커버력이 있는 자외선 차단제도 손사래를 치는 그이기에 반응이 무척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눈썹 모양에서 눈에 띄는 여성한 부분을 바로잡아주고 지저분한 잔털만 정리해 인위적이지 않기 때문이란단.

뿐만 아니라 왁싱의 완벽함 마무리를 도와줄 다양한 눈썹 관련 도구도 빼놓을 수 없다. 등성등성 난 눈썹을 깔끔하고 선명하게 해주는 ‘브라우 징’, 눈썹결을 정돈하는 눈썹 전용 젤인 ‘스피드 브라우’, 솜이 없어서 고민인 이들을 위한 ‘인스턴트 브라우 펜슬’ 등 베네피트의 전문 브라우 제품이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출시한 눈썹 마스크라 ‘김미 브라우’는 출시 한 달 만에 라이트 컬러가 품절 사태를 일으키며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눈썹 사이의 빈 공간을 메워 원래 예뻐던 눈썹인 것처럼 변신시키는데, 자연스러운 건 물론이고 사용법이 간단해 남성들에게도 인기몰이 중이다. 자, 거울을 보고 자신의 눈썹을 관찰해보자. 내 얼굴형과 눈 모양에 가장 잘 어울리는 눈썹 형태를 찾고 싶거나 말 못할 눈썹 고민을 실패 없이 해결하고 싶거든. 그렇다면 한 번의 경험으로도 기대 이상의 만족감을 안겨줄 베네피트의 브라우 바를 찾을 시간이다. 문의 1588-4059 에디터 배미진, 이예진

SPECIAL EVENT COUPON

베네피트와 <스타일 조선일보>가 함께하는 브라우 바 왁싱 이벤트

본 쿠폰을 소지하고 전국 베네피트 브라우 바에서 브라우 왁싱(2만5천원 상당)을 받으면 립 왁싱(1만4천원 상당)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간 2014년 4월 16일~5월 16일 * 예약문의 1588-4059

* 교차매장 서울(롯데백화점관악점·노원점·을지로 본점·스타시티점·영등포점·잠실점·청량리점·한대백화점 본점·우역센터점·천호점·목동점), 경기도(대백화점 분당점·평촌점·구리점·현대백화점 간택점·중동점·신세계백화점 경기점·AK백화점 수원점), 부산(롯데백화점 부산 본점,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롯데백화점 인천점·울산점·대구점, 신세계백화점 충청점·광주점, 대전 갤러리아 타임 월드점

※ 사전 예약하면 디베르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Styling Effect

똑같은 공간이라도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에 따라 전혀 다른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다. 거실, 침실, 다이닝 룸 등 세 공간을 각기 다른 두 가지 스타일로 꾸며 홈 드레싱의 묘미를 전한다.

photographed by park chanoo



Living Room 1. Scandinavian Contemporary

브라운 컬러의 패브릭 소파 1백35만원 **아노베사**, 옐로우와 베이지 컬러를 매치한 리넨 쿠션 7만9천원, 리운지 체어 위 스트라이프 패턴 쿠션 6만3천5백원 모두 **블로마**, 블루·그레이·옐로·화이트 컬러를 매치한 쿠션 9만3천원, 옐로우 컬러의 X 패턴이 있는 쿠션 9만9천원, 벽걸이형 리운드 선반 25만5천원 모두 **침플링**, 그레이 컬러 리운지 체어 3백16만원, 알파벳 D가 프린트된 그린 컬러 포스터 6만5천원 모두 **아이카피스**, 그린 컬러 리운드 커피 테이블 1백10만원, 내추럴한 오크 우드 리운드 테이블 1백40만원 모두 **리모델리스트**, 컬러 패브릭 나뭇 가지이 문보이는 루프 2백12만원 **유엔아스**, 플로어 램프 가격 미정 **인디디얼**, 바이올렛 컬러 상판의 스톤 62만8천원 **다들레이스**, 핑크 컬러 오디오 MCR-042 30만~50만원 대 **아이바**, 신통한 컬러 매치가 돋보이는 라그 18만5천원 **이베베드**, 커피 테이블 워킹 컬러 킴 & 소서 세트 3만7천원, 레드 컬러 머그 2만3천원, 세라믹 티팟 8만7천원, 창가의 그린 컬러 캔들 스틱 3만5천원 모두 **스칸**, 레드 머그 아래 받침 세라믹 플레이트 3만9천원, 베이스로 쓴 세라믹 지그 10만9천원, 지그 아래 셀러드 플래터 13만9천원 모두 **마리베고**, 리운드 선반 안에 둔 이나셀 블랙 세트 6만7천2백원, 창가의 훑대 1만2천원 모두 **아이카피스**, 창가의 목각 인형 '우드 돌(Wooden Dolls)' 각 15만원 **비트라**, 창가의 토끼 오브제 3만원 **카레**.



Living Room 2. Classic Chic

심플한 라인이 돋보이는 장 푸르메 디자인의 일체어 8백95만원 **비트라**, 인체어에 놓인, 만화를 연상케 하는 패턴이 프린트되어 있는 쿠션 9만8천원, 소파 위 가드린 쿠션 25만8천원 모두 **침플링**, 화이트 사이드 테이블 65만원, 테이블 위 스탠드형 모빌 51만원 모두 **아이카피스**, 화이트 트라이 13만원, 와인 글라스 19만4천원(2개 1세트), 디켄터 27만5천원 모두 **로소롱**, 블랙 스트라이프 라그 13만8천원 **이베베드**, 라그 위 포크 나뭇 가지의 얼굴 패턴이 담긴 쿠션 18만2천원 **다비**, 비행장시를 담은 스피커 베오플레이 A9 3백39만원 **방앤홈**, 유리 케이스 형태의 랜턴 31만원(3개 1세트), 리넨 소재 스크린 27만원, 소파 옆 클래식한 다리가 돋보이는 사이드 테이블 60만원 모두 **카레**, 귀여운 아이돌이 반복하는 모습을 패브릭한 쿠션과 브라운 컬러 쿠션 각 9만9천원 **매콤드라미**, 빈티지한 금속 스탠드 39만6천원 **칼로니스테이스**, 워트 있는 강지 알라스토가 담긴 포스터 4만원 **데이글로우**, 창가의 블랙 원목 촛대 작은 사이즈 30만원, 큰 사이즈 35만원 **아이디디자인**, 니트로 카바링한 벽시가 59만원 **헬스**, 소파는 페이스 스튜디오 소장품. 창가 동인의 소품과 박스, 유리구슬, 이나셀 오브제, 모래시계, 꽃병, 화이트 사이드 테이블 위 세라믹 카드 오브제는 모두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Bedroom 1 - Modern Monotone

빈티지한 화이트 양치기 2백60만원 카비, 양치기에 걸린 베드 러너 15만원 주미네, 화이트 메탈 소재 사이드 테이블 60만원 비트라, 사이드 테이블 위 블랙 아그 1만9천원 스칸, 메탈 소재 블랙 촛대 15만5천원 데 이얼로우, 스트라이프 패턴 러그 가격 미정 안앤, 오디오 배오플레이 A8 1백98만원 방앤올루션, 벽에 건 흑백사진 같은 그래픽 작품 14만8천원 에이모노, 비누가 걸려 있는 블랙 테이블 가격 미정, 침대 위 러그 동 형태의 스트라이프 패턴 쿠션 커버 5만1천원, 8' 패턴을 이용한 쿠션 커버 4만5천원 모두 하우스라벨, 카 톱 스누피의 코와 주둥이를 연상케 한다고 하여 이름도 스누피인 테이블 램프 1백98만원 더몰리아스, 벽 둘 같은 심플한 디자인의 물린 시계 46만원 이노베파, 체스 세트 62만9천원 칼라미스페이스, 사다리 형태 의 신반 79만원 에이퍼픽스, 가장자리를 블랙으로 마감해 깔끔한 인상을 주는 화이트 베딩 퀸 사이즈 38만 원 매종드올리, 그레이 컬러의 거대한 패턴이 있는 쿠션 12만5천원 디브,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반짝적 패턴이 돋보이는 쿠션 가격 미정 에펠 에이아이디, 침대 헤드보드는 스타일리스트 제작.



Bedroom 2 - Romantic Cozy

편안하면서도 우아한 라인이 돋보이는 양치기 1백48만원, 유아기에 화려한 장식을 했던 거울 8만8천원, 심플하면서도 로맨틱한 가장자리 장식이 돋보이는 거울 4만8천원, 화이트 오브제이 담긴 글라스 돛 17만8천원, 초콜릿을 우려낼 수 있는 글라스 캔들 저그 7만8천원, 서랍장 위 심플한 라인의 물병과 스푼 위 컵 세트 4만8천원 모두 리베아리베중, 양치기 옆 라운드 스푼 81만원 램프, 고사를 램프의 보드로 활용한 유니크한 디자인의 테이블 램프 65만원, 러그 위 러그 소재 선풍기 102만원, 그레이 컬러 쿠션 9만8천원, 클래식한 필기체를 패턴으로 활용한 라틴 쿠션 가격 미정 모두 매종드올리, 3인 서랍장 1백68만원, 클래식한 침대 헤드보드 1백68만원, 한쪽 끝에 그레이 컬러 자수 퀸 사이즈를 장식한 베개 16만원, 패시워드된 라틴 직사각형 쿠션 16만8천원, 오티크 레이스로 패시워드된 삼 쿠션 18만원, 베이지 컬러와 핑크 컬러를 매치한 매트 2만1천원 모두 데 일리 스위트, 2가지 모양의 플라스틱 램프 23만8천원, 서랍장 위 스탠드 액자 62만7천원 모두 두아브이에, 서랍장 위 철제 트레이 13만8천원, 둥근 무늬가 있는 메탈 박스 28만8천원(2개 1세트) 모두 매종드올리, 아이보리 컬러의 서랍장 세 오브 제 52만7천원 칼라미스페이스, 브라운 컬러의 투명한 유리 꽃병 12만8천원, 핑크 컬러의 핸드메이드 퀸 사이즈 3만3천원 모두 램프, 핑크 스트라이프와 꽃 패턴이 줄지어 있는 침구 세트 90만원, 베드 라우 사용한 작은 꽃 패턴이 담긴 이불 커버 56만원, 작은 정미꽃 패턴이 있는 베개 커버 17만원 모두 구디도.



Dining Room 1_ Stylish Pop

화이트 상판의 라운드 식탁 3백1만원 **인노비드**, 매트한 느낌의 세라믹과 우드를 매치한 펜던트 램프 큰 사이즈 33만원, 작은 사이즈 24만원, 피스타키오 컬러의 예시 우드 체어 58만원, 식탁 위 내추럴한 우드에 옐로 컬러와 핑크 컬러를 입힌 볼 형태의 촛대 각 4만5천원, 구불거리는 블루 라인이 강렬한 인상을 주는 포스터 액자를 담은 저금통 5만6천원 모두 **에이퍼픽스**, 바둑과 등반이의 팝한 컬러와 날렵한 다리가 인상적인 체어 가격 미정 **에이쓰에이뉴**, 미니-업한 디자인의 옐로 체어 47만원, 펜트 컬러 칠을 모터보트 디자인한 테이블 매트 9만4천원(4개 1세트), 펜트 컬러 칠을 연상케 하는 머그 4만7천원, 그린 톤을 가미한 8층색 보온병 12만3천원, 레드 바탕에 화이트 도트 가 들어간 컵과 소서 세트 12만8천원, 원형의 손잡이 라인이 독특한 코팅 컬러 머그와 수납장 위 타키 블루 컬러의 머그 각 6만5천원(2개 1세트), 수납장 아래쪽 바이올렛 컬러의 글라스 볼 21만5천원 모두 **이노베사**, 바나나 형태의 볼 22만원 **루밍**, 물방울 달은 바이올렛 컬러의 촛대 5만원, 경쾌한 플립 패턴이 담긴 창가의 띠 소재 트레이 3만1천원 모두 **스칸**, 오렌지 컬러의 모듈형 수납장 2만9000원 **풀**, 블루 컬러의 커피 메이커 19만8천원, 레드 컬러의 주전자 11만8천원, 그린 컬러 토스터 14만8천원 모두 **켄우드**, 레드 컬러의 패턴을 담은 화이트 머그 2만8천원 **마리메코**, 'A Room of One's Own'이라는 문장이 쓰인 포스터와 프레임 25만원, 화이트 배경에 팝한 컬러감이 돋보이는 포스터와 프레임 15만원 모두 **크리에이티브**, 블루 컬러 띠 소재 러그 12만8천원, 핑크와 블루의 컬러 매치가 돋보이는 러그 13만8천원 모두 **이베스트** 제품.



Dining Room 2_ Urban Natural

오방형 우드 식탁 1만8천원, 블랙 수프 스푼 6만4천원, 수납장 안에 넣은 소리 야나기 디자인의 무심 소스 팬 26만5천원, 창가의 유리병 2만원 모두 **샬러원**, 자작나무 소재의 펜던트 조명 58만원 **루밍**, 그레이 컬러 패브릭 소재의 세븐 체어 1만44천원, 블랙 앤드 화이트 체어 1만17천원, 동근 등받이가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체어 2만25만원 모두 **에이퍼픽스**, 화이트 체어 36만원 **리블레트**, 식탁 위 우드 소재 라운드 트레이 45만원(3개 1세트), 수납장 위 우드 케이스의 라이트 8만5천원 모두 **메트로메이지**, 식탁 위 커빙 보드 16만5천원 **로소플**, 커빙 보드 위 그레이 겁 2만3천원, 그레이 세라믹 플레이트 1만2천원, 감자줄은 플레이트 중 맨 아래 그레이 미니 플레이트 2만1천원, 그 위의 화이트 미니 플레이트 4만2천원, 오목한 샐러드 플레이트 1만7천원, 맨 위 미니 플레이트 2만9천원, 트롤리 위 두껍은 세라믹 병 16만원 모두 **디자인이미지**, 식탁 위 유리병 5만3천원 **인노비드**, 트롤리 위 커피 메이커 48만8천원, 창가의 토스터 17만8천원 모두 **드롭키**, 우드 소재 수납장 72만원 **카리블레트**, 네 가지 컬러가 모자이크 패턴을 이룬 러그 16만8천원 **이베스트**, 수납장 위 자작나무 소재 알라스트 프론트 17만3천원, 수납장 위 볼 31만6천원(3개 1세트) 모두 **에이퍼픽스**, 가죽끈이 달린 세라믹 벽시계 74만원 **월즈**, 창가의 나뭇가지 형태 오브제와 식탁 위 꽃병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스타일리스트 **최지아** 어시스턴트 **양선영, 홍수희, 박소영** 진행 **신혜원**(객원 에디터)

구디모 080-543-7255, www.gudamo.co.kr **다브** 02-512-8890, www.dav.kr **대얼리** 02-3444-9695, www.theplace.kr **데이글로우** 02-6397-9937, www.dayglow.co.kr **데일리** 080-488-7711 **디자인이미지** 02-380-0001, www.designimage.co.kr **리블레트** 02-548-3467, www.lacollecte.kr **로소플** 02-545-5417, www.loshowroom.com **루밍** 02-599-0803, www.rooming.co.kr **리버메이슨** 02-547-1977, www.rivermason.co.kr **마리메코** 02-535-2505, www.parsangel.co.kr **메트로메이지** 02-2645-0688, www.maisondel Julie.net **메트로메이지** 02-749-5667 **풀** 02-543-0164, www.moll-system.co.kr **무이쓰나베** 02-515-9556 **방안** 02-518-1300 **블로마** 070-4139-0230, www.blomma.co.kr **비트라** 02-511-3437 **스칸** 02-3444-0608, www.skan.kr **이퍼** 02-3467-3300 **에이퍼픽스** 0605-558-0805, www.amonno.co.kr **에이쓰에이뉴** 02-541-1001 **에이퍼픽스** 070-4656-0175, www.hpix.co.kr **에이퍼** 디자인 02-517-3011 **에이퍼** 02-3785-0880 **에이퍼** 070-8654-3637, www.8colors.co.kr **에이퍼** 디자인 02-515-9912 **월즈** 02-511-7911 **유엔** 02-547-8009 **이노베사** 02-3463-7752, www.nordicdesign.kr **이베스트** 070-8804-6495, www.ihnetbell.co.kr **인노비드** 02-515-3660, www.innovad.co.kr **인노비드** 02-542-0244, www.inostal.co.kr **인노비드** 02-3446-5103 **주마네** 070-8742-2938, www.jumaine.com **진블랑** 070-8842-0838, www.jambiano.com **샬러원** 02-517-8001, www.chapterone.kr **카레** 02-545-9872, www.kare-korea.com **카리블레트** 1598-4797, www.kaarekint.co.kr **컬러** 02-542-7548, www.colormspace.com **켄우드** www.kerwoodkorea.co.kr **크리에이티브** 02-325-2777, www.creativeda.com **에이퍼** 070-4119-2666, www.houselabel.co.kr

SHOWROOM



프라다 2014 S/S 아이웨어 컬렉션 프라다가 2014 S/S 아이웨어 컬렉션에 등장한 선글라스를 제인한다. 수작업으로 제작한 컬러 크리스탈이 프레임 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며, 곁이 눈을 연상시키는 캐츠 아이 형태의 세련된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클래식한 블랙, 선명한 그린 컬러가 대표적이다. 문의 02-3218-5331

디리 F&S 로에베 2014 S/S 아이웨어 컬렉션 디리 F&S에서 로에베 2014 S/S 아이웨어 컬렉션을 소개한다. 대표적인 'SLW 842' 모델에는 가죽 브레이슬릿에서 차용한 모티브와 골드 장식 로고를 템플에 적용했으며, 자연스럽게 그레이디언드는 세련된 브라운 컬러로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표현했다. 문의 02-513-2389

루이 비통 새로운 광고 캠페인 루이 비통이 마일 워라임스와 함께 2014 S/S 광고 캠페인을 촬영했다.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라킷과 카쉬인, 일마 등과 어울린 그녀의 모습은 절제된 우아함과 자신감 넘치는 이미지가 공존하는 다양한 여성성을 그려냈다.

카린 로이펠트의 감각적인 스타일링과 루이 비통 초기 광고 캠페인의 정신을 예술적으로 구현해낸 사진가 피터 린드버그의 세련된 톤과 앵글이 돋보인다. 문의 02-3441-6477

빨강레리 웨딩 슈트 제안 전통 이탈리아 남성복 브랜드 빨강레리에서 웨딩 시즌을 맞아 슈트 컬렉션을 선보인다. 신랑을 위한 예복으로는 슬림한 실루엣을 강조한 풀라인을, 양가 이브자를 위한 슈트로는 브랜드의 최상위 라인인 시타로일레 컬렉션을 제안한다. 뿐만 아니라 감각적인 하객 패션을 위해 화사한 컬러 블레이저와 핑 카터프 등이 준비되어 있다. 문의 02-3479-1956

띠어리 서머 원피스 그레이디 띠어리에서 강렬한 오렌지 컬러가 인상적인 원피스, 그레이디를 제안한다. 고급스러운 실크 소재로 몸의 실루엣을 부드럽게 타고 흐르며, 카디건이나 재킷 안에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반소매 디자인과 동글게 처리한 말단의 절개선이 특징이다. 블랙 컬러로도 선보인다. 문의 02-544-0065

로가디스 컬렉션 스타일더터 로가디스 컬렉션에서

새로운 캠페인 '스타일더터'를 제안한다. 매장을 방문한 고객의 스타일을 일대일로 진단해 개개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코디네이션을 제안하는 서비스. '스타일 매뉴얼 북'을 통해 옷을 고르고 매치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 재미있는 게임과 같은 유쾌한 경험이 되도록 돕는다. 로가디스 컬렉션 전국 매장에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문의 02-2076-7623

엘프 로렌 미니 리키 백 론칭 엘프 로렌의 아이코닉한 리키 백이 미니 사이즈로 제작되었다. 블랙, 브라운 등 베이스 컬러를 비롯해 옐로, 핑크, 네온 등 볼라 어울리는 31가지의 다양한 컬러로 구성했다. 2014 S/S 컬렉션 런웨이의 분위기를 담아 글로시한 페이먼트 가죽으로도 선보인다. 문의 02-545-8200

엘로드 골프 웨어 제안 엘로드가 2014 S/S 시즌을 맞아 실용적인 골프 웨어 스타일링을 제안한다. 전형적



인 트렌치코트의 불편함을 보완한 아우터와 가죽 디테일을 더한 베스트가 대표적이며, 아이보리, 베이지, 라이트 그레이 등 뉴트럴 톤과 카키 컬러를 믹스해 절제된 세련미를 강조했다. 실크나트 컬러의 모자도 포인트를 더해준다. 문의 02-3677-8753

FASHION

JEWEL



스와로브스키 러블리 크리스탈 워치 오스트리아 패션 주얼리 브랜드 스와로브스키에서 모델 한혜진과 화보를 통해 '러블리 크리스탈(Lovely Crystals)' 워치 스타일링을 제안한다. 베젤 위에 16개의 지르코니아 스톤이 원을 그리면서 미끄러져 자유롭게 움직이는 균형미가 돋보이는 주얼 워치로, 가죽 밴드와 메탈 2가지 스타일과 화이트, 블랙, 블루 등의 컬러로 출시된다. 문의 02-514-9006

오메가 플라워 컬렉션 오메가에서 5개의 오메가 로고를 걸쳐 플라워 모티브를 만든 '플라워 컬렉션'을 소개한다. 레드 골드와 자개반, 다이아몬드와 오크 나무를 결합한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하며, 펜던트와 링, 이어링으로 구성했다. 특히 화이트 골드와 오크 나무로 디자인된 제품은 50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을 강조했다. 문의 02-511-5797

해밀턴 재즈마스터 레이디 오토 해밀턴에서 '재즈마스터 레이디 오토' 워치를 제안한다. 꽃잎을 연상시키는 스텐이 다이얼과 글자까지 지니는 인덱스가 특징이며, 12시 방향과 백 케이스를 통해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엿볼 수 있다. 스타데니스 스톱 또는 로즈 골드 컬러 케이스 등으로 구성했으며, 특

몽블랑 마스터스틱 탄생 90주년 컬렉션 몽블랑 마스터스틱 탄생 90주년 컬렉션을 선보인다. 단결정, 수성펜, 볼펜으로 출시되는 이 컬렉션은 고급 블랙 레진 소재와 레드 골드 플레이티드로 제작했으며, 1924년 처음 출시했을 당시 디자인이 동일한 커버의 특별한 기프트 박스에 제공된다. 마스터스틱 탄생 90주년 컬렉션의 만년필에는 최고의 장인들이 수공으로 제작하는 솔리드 레드 골드 날이 있으며, 날 위에 탄생 90주년을 기념하는 글자를 새겼다. 문의 02-3485-6627

BEAU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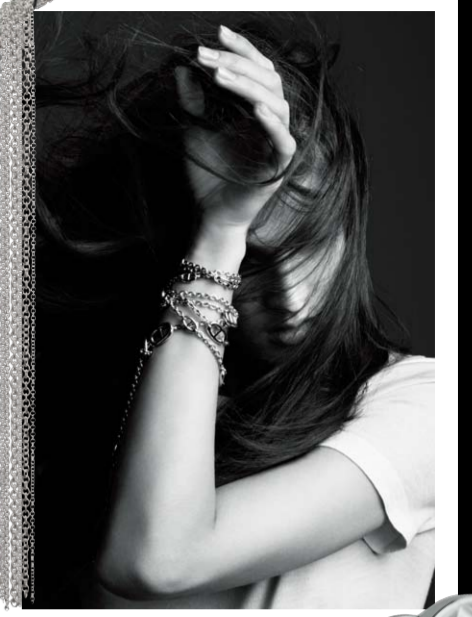
비오렘 비오렘이 5월을 앞두고 아쿠아수르스 3.0 수분 크림 슈퍼 사이즈 패키지를 한정 판매한다. 기존 사이즈보다 2.5배 커진 넉넉한 용량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캘리그래피 메시지가 새겨진 것이 특징이다. 패키지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생각대로 될 거야' 등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선물용으로도 제격이다. 문의 080-022-3332

SK-II 스팟케어&브라이트 데이 크림 SK-II가 낮 전용 진중 화이트닝 크림, '스팟케어&브라이트 데이 크림'을 출시한다. 농축 페퍼민™의 파워를 기반으로 낮 동안의 인텐티브 화이트닝 케어를 위해 개발한 데이 바디닝 부스터 캡슐 테크놀로지가 알려진 생선 추출물과 함께 멜라닌 배출을 돕고, 자외선의 화이트닝 케어 효과를 극대화한다. 문의 080-023-3333

오리엔트 골프 이마하 인프레스 C's 여성용 시리즈 오리엔트 골프가 '2014년 이마하 인프레스 C's'를 출시했다. 여성 골퍼를 위해 개발한 모델로, 클럽 전체 무게와 밸런스를 가볍게 만들어 비거리를 향상시켰다. 초저중심 설계로 볼을 띄우기 쉬우며, 톱 블레이드의 안정감 있는 어드레스를 장착했다. 드라이버와 클럽에는 장미꽃 대를 장식한 디자인으로 시각적인 아름다움도 선사한다. 문의 02-582-5004

에르메스의 특별한 실버주얼리 전시

에르메스가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매종 에르메스 도산파크에서 실버 주얼리를 선보이는 '사운드 오브 실버(Sound of Silver)' 전시를 개최한다. 에르메스의 실버 주얼리는 고급스러운 광택과 정교한 마감 기법 등 골드 주얼리의 세공법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 완성도가 높다. 이번 전시에서는 에르메스의 주얼리 아티스틱 디렉터 피에르 아르디가 디자인한 실버 주얼리를 대거 선보인다. 자신의 이름을 건 슈즈 레이블도 보유한 피에르 아르디는 1990년 에르메스의 여성 슈즈와 남성 슈즈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된 후 2011년에 에르메스 파인 주얼리의 아티스틱 디렉터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얼리의 중심이 되는 '생 당크르(Chaîne d'Ancre)' 디자인의 모티브는 1938년, 4대 에르메스 회장인 로베르 뒤마가 부두 근처를 산책하다가 배에 연결된 돛을 보고 영감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유려한 곡선과 볼륨감 있는 형태, 정확한 균형을 이루는 디자인은 또한 착용감으로 실용적인 아름다움까지 갖추었다. 세계적인 뮤지션 요기윌(YoggiOne)의 음악과 함께 만든 영상, '사운드 오브 실버'도 주목할 만하다. '이번 실버 주얼리에도 소리가 있다'는 주제로 시작한 영상은 어둠 속에서 체인, 브레이슬릿, 링 등의 주얼리가 빛과 어우러져 특별한 소리를 만들어냈다. 사운드 오브 실버 영상은 에르메스의 공식 유튜브 채널(www.theSoundofSilver.hermes.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할 것.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다양한 볼거리를 꾸민 이번 전시는 에르메스의 혁신적인 실버 주얼리를 공개하는 특별한 시간이다. 문의 02-3015-3251



GOLF



잭 니클라우스 JNII 한국 아마추어 대표 선발 예선전 잭 니클라우스의 글로벌 대표 대회, JNII(Jack Nicklaus International Invitational)가 한국 대표로 참가할 국가 대표 예선전을 진행했다. 여기서 선발된 상위 스코어 1명에게는 한국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전세계 20여 개국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프로모션으로 2014년 5월 미국 뉴 알바니 컨트리클럽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02-3677-8753



오리엔트 골프 이마하 인프레스 C's 여성용 시리즈 오리엔트 골프가 '2014년 이마하 인프레스 C's'를 출시했다. 여성 골퍼를 위해 개발한 모델로, 클럽 전체 무게와 밸런스를 가볍게 만들어 비거리를 향상시켰다. 초저중심 설계로 볼을 띄우기 쉬우며, 톱 블레이드의 안정감 있는 어드레스를 장착했다. 드라이버와 클럽에는 장미꽃 대를 장식한 디자인으로 시각적인 아름다움도 선사한다. 문의 02-582-5004



가장 매력적인 잇백, 펜디 투주르 바게트, 셀라리아, 파카부, 투주르. 펜디의 역사를 대변하는 백 컬렉션은 매 시즌 모던한 방식으로 재해석되며 브랜드의 혁신과 장인 정신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12 F/W 프리 컬렉션에서 처음 등장한 2jours 백투주르 백은 '셀라리아 백'이라고 불릴 만큼 트렌드를 이끄는 이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으며 한 시즌 만에 아이코닉 백의 반열에 올랐다. 세라 제카 파카를 비롯해 케이트 모스, 니콜라 보디노바, 틸다 스완턴 등의 스트리트 룩은 물론이고 공항 패셔너나 패션 워치에서 투주르를 들고 활보하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투주르(Toujours)'라는 이름은 프랑스어로 '언제나' 또는 '항상'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클래식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실비아 벤추리니 펜디의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다. 이름의 의미뿐만 아니라 펜디가 추구하는 주요 가치인 듀얼리즘에서 알 수 있듯, 모든 투주르 백은 서로 다른 2가지 컬러와 소재가 어우러져 예상치 못한 조합과 양면적인 매력을 드러낸다. 기본적인 솔리드 컬러에서 시작해 시즌을 거듭할수록 다양한 컬러 블록과 프린트, 더욱 과감한 소재의 매치를 보여주는 투주르 컬렉션이 2014 S/S 시즌에 새로운 디자인을 추가하며 완벽한 라인업을 구축했다. 옐로, 핑크, 블루 등 화사한 컬러 팔레트로 선보이는 미니 사이즈의 '프티 투주르(Petite 2jours)' 백과 가방 양쪽을 펼쳐 2가지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는 '트와주르(3jours)' 백, 단단한 형태감이 돋보이는 '데미주르(Demi-Jours)' 백이 그것이다. 이번 컬렉션의 키 룩인 오가자 레이어드 드레스의 그래픽적인 모티브와 좌우대칭을 이루는 블랙과 실버 컬러, 컬러 블로킹이 돋보이는 X자 디자인을 담아 하나의 범주 안에서 모던하게 해석한 투주르의 다양한 면모를 즐길 수 있다. 문의 02-2056-9021

